춘천 성시신문

The Chun Cheon Holy City News

www.holycity.or.kr

성시비전

교회갱신 · 부흥 · 복음화운동
교회연합일치운동
새로운 도시 모범시민운동
세계복음화기도운동

발행인 : 이 원 호

3. 세상을 변화시키는 힘! 가나안 운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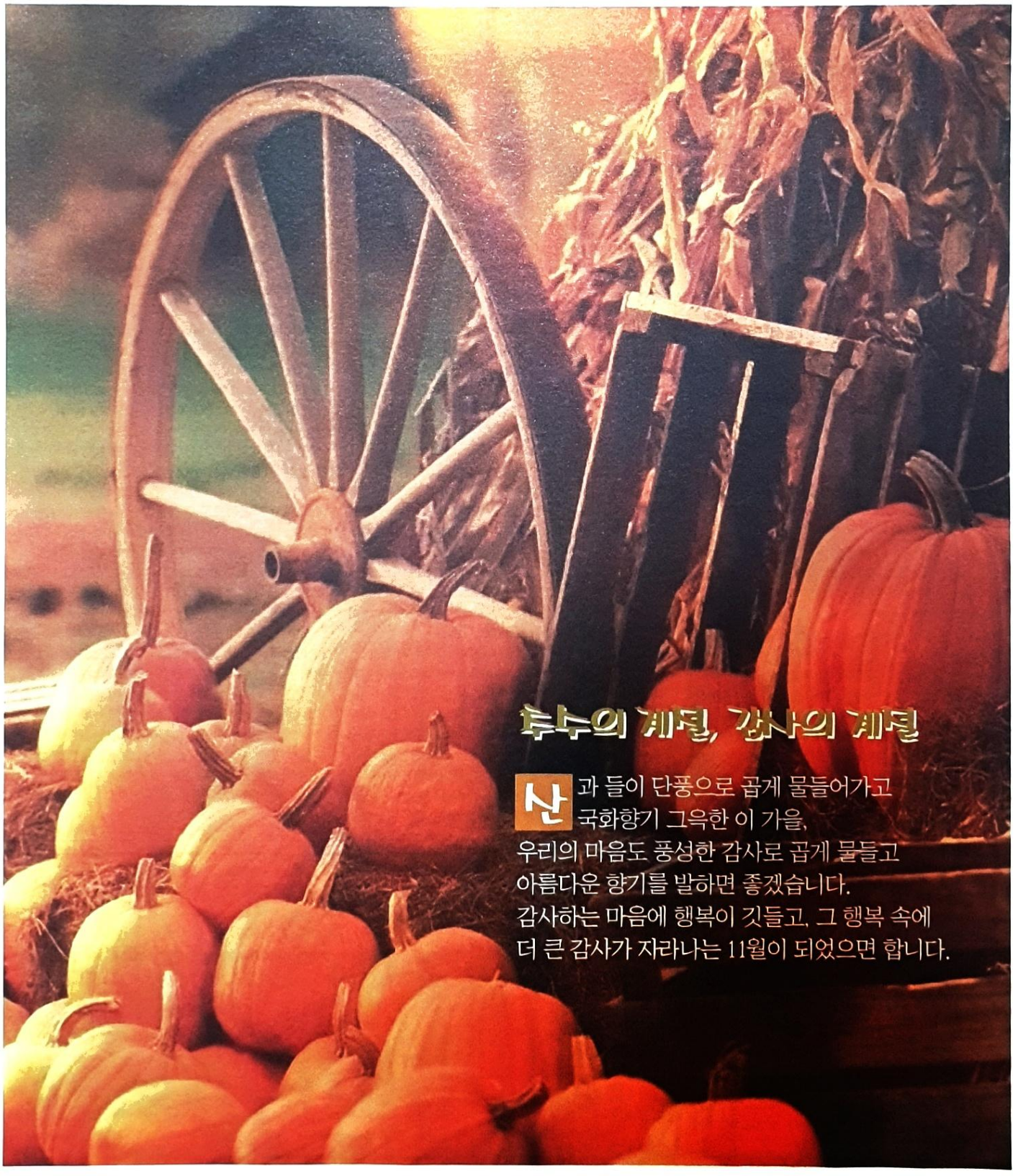
5. Fire again 2007 춘천 성시화

9. 우리 곁에 있는 山 북 배산

11. D-15 수능 가족이 함께 준비하세요

2007년 11월 1일

(1998년 9월 15일 창간) **제108호**



추수의 계절, 감사의 계절

산과 들이 단풍으로 곱게 물들어가고
국화향기 그윽한 이 가을,
우리의 마음도 풍성한 감사로 곱게 물들고
아름다운 향기를 발하면 좋겠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에 행복이 깃들고, 그 행복 속에
더 큰 감사가 자라나는 11월이 되었으면 합니다.

춘천성시화운동본부

특 집



말씀, 영성, 성령으로 사는 삶

그리스도인의 영적생활은 말씀과 말씀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아름다운 성도의 향기를 삶의 터전에서 말하는 것

오늘날의 현상

한국교회에서 대략 1980년대 말부터 영성(spirituality)이라는 말이 광범위하게 사용되기 시작했다. 약 20년이 지난 오늘날에는 그리스도인 사이에서 어떤 주제이든 '영성'이라는 말이 빠지면 흡사 그 핵심이 빠져버리기나 하는 것처럼 이 용어는 매우 귀한 대접을 받고 있다. 또 과거에는 영성이 기독교의 전유물인 것처럼 취급 받았으나 포스트모던의 시대정신이 활성화 되면서부터 불교의 영성, 이슬람의 영성, 힌두교의 영성, 인디언의 영성 등 다원주의적인 표현 또한 널리 사용되고 있다. 이트록 '영성'이 무질서하게 난무하는 현상에 대하여 그리스도인들은 서로 전혀 다른 두 가지 반응을 보인다. 첫째, 대부분의 그리스도인은 '영성'이라는 용어 사용의 풍조에 대해 비판의식 없이 그대로 수용하는 경향을 보인다. 둘째, 소수의 그리스도인들은 현재 유행하는 '영성'과 '영성훈련' 등에는 다분히 비기독교적 혹은 반기독교적요소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아예 '영성'이라는 단어를 사용조차 하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영성이란 무엇인가?

영성을 가장 많이 다루고 있는 로마 가톨릭교회에서는 성자들의 승배, 유품에 대한 경배, 성인들의 유품을 모신 곳에 대한 순례, 명상, 미사 집례에서 성직자들의 화목적인 기능 또는 기도에 있어서 중보적인 기능을 의미한다. 수도원에서는 영성이 충만한 사람이란, 금욕으로 일관하는 사람인데, 그는 명상적인 이상을 추구하는데 자신의 일생을 헌신한 사람을 말한다. 또 일부 개신교의 복음주의자들은 성령의 은사를 실천하는 일이라고 하고, 다른 부류에서는 건전한 교리를 통해서 자아를 발전시키는 것이라고 하며, 또 다른 무리들은 하나님과 인간에 대한 사랑이라고 말한다. 영성이란 말은 "초월적인 차원에 대한 열린 마음", "궁극적인 실재에 대한 체험", "그리스도인의 신앙에 대한 실제적 경험" 등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영성은 신비신학을 의미했다. 이성 중심의 신학을 극복하겠다는 태도에서 개인의 내적인 신앙의 세계를 강조하고 주관적인 신앙체험과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제를 중시하는 것'이라고 풀이하고 있다. 기독교는 영적인 종교이고, 이는 우리 영혼의 문제를 다루고 있다. 그러나 기독교의 영적인 생활은 금욕적이거나 신비주의적인 체험을 통해서 실천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하여 성령의 능력에 근거한 삶으로서 내면적인 신앙체험을 포함하여 전 삶의 영역에 걸쳐서 표현되어지는 것이다.

'영성', '영성신학' 의 문제점

영성신학이라는 것은 말씀의 객관적인 측면을 강조하기 보다는 말씀이 한 개인에게 적용되는 주관적인 체험을 강조하는 경향을 보이주고 있다. 이러한 주관적 체험을 중시하는 경향은 영성이라는 것을 인간의 감성적 측면을 강조하는 불균형을 가져오게 하였다. 인간의 모든 활동 영역을 분석해보면 지적, 정서적, 의지적 차원 등 세 가지의 차원으로 나누어볼 수 있는데, 이 세 가지의 서로 다른 차원적 요소들이 한 인간 속에서 분리되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구분될 수 없으나 구별될 수 있는 통합되어 존재한다. 따라서 기독교인들이 추구해야 할 영적생활이 영성이라는 단어로 불리어질 때, 영성이란 맹목적 행동주의도, 단순한 감정주의도 아니며, 또한 지식이나 도그마의 체계도 아닌 인간의 세 가지 차원 즉 지적, 정서적, 평가적 차원이 연속성 속에서 통합되어진 구체적 실체를 말하는 것이다.

또한 바른 신학적 전통에 기초하지 않을 때, 그리스도인의 영적생활으로서의 영성을 극단적인 이원론적 시각으로 이해할 수 있다. 기독교적 영성에 대한 이원론적 이해에 가장 영향을 준 것은 바울로서, 영과 육을 대립시켜 사용한데에서 찾아 볼 수 있다. 그러나 바울이 영적인 삶과 육체적인 삶을 대비시킬 때 그것은 물질적인 것과 비물질적인 것의 대립을 말하려는 것이 아니다. 바울에게 영적인 삶이란 보이지 않는 어떤 신비적인 실체만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삶 전체를 의미하는 것이다. 반면에 육적인 삶이란 성령 바깥에서 하나님의 뜻과 전혀 상관없이 사는 삶의 모든 차원을 가리키는 것이라 볼 수 있다.

성경신학으로서의 영성신학의 가능성

성경에 기초한 신학으로서의 올바른 영성신학을 정립하기 위해서 먼저 분명하게 전제해야 할 요소들이 있다. 첫째, 영성을 정의할 때 분명하게 성경말씀에 근거하여 주장하고, 성경에서 가르치는 바에 대한 절대 확신과 믿음에서 출발해야 한다. 둘째, 영성신학은 성경이 성령론의 확고한 입장 하에서, 그리스도인의 삶의 실천에 있어서 경건 훈련차원으로 엄격히 제한해야 한다는 것이다. 영성신학을 정립, 전개함에 있어서 무엇보다도 강조해야 할 중요한 성경적 주제들은 그리스도와의 연합, 경건의 능력, 말씀으로 지배되는 삶, 성령의 임재와 능력으로 인도되는 삶, 기도의 능력 속에 숨 쉬는 삶, 공동체적인 나눔, 선교적 사명 등 7가지라고 할 수 있다. 성경이 말하고 있는 그리스도인의 영적생활이란 특별한 것이 아니다. 성령님이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오셔서 자연적으로 일상생활 속에서 드러나는 것이다. 기도라는 것이 영혼의 호흡으로서 특별한 장소에서 특별한 방법으로 행해지는 것이 아니듯이, 영적생활이라는 것은 믿음과 말씀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가며, 아름다운 성도의 향기를 삶의 터전에서 나타내는 것이다. 또한 그리스도인의 성화적 삶은 어떤 특별한 프로그램에 의해서 진행되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확신하는 것이 중요하다. 예수 그리스도는 제자들의 영적인 성장을 위해서 특별한 비법전수나 프로그램을 만들고 시행하시지 않으셨다. 천히 일상생활 중에 삶의 모본을 보여주셨을 뿐이며, 성령의 역사에 전적으로 맡기셨다. 따라서 현대 교회들이 영성을 말함에 있어서 일상적 삶의 터전을 떠나서 특별한 프로그램에 의한 성령의 역사를 기대하는 것은 그 자체가 정상적인 성도의 삶은 아니라고 할 수 있겠다.

| 급 · 편집부

십자가는 사랑입니다.
온 세상 모든 죄를 용서하고 싶은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십자가는 생명입니다.
영생의 길, 부활의 길, 천리의 길로
인도하는 예수님의 생명입니다.

십자가는 희생입니다.
내 모든 탐욕에서도 허물을 향해
비상하게 만드는 예수님의 희생입니다.

십자가는 구원입니다.
죄와 욕망과 심판에서 벗어나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는 예수님의 구원입니다.



예찬 십자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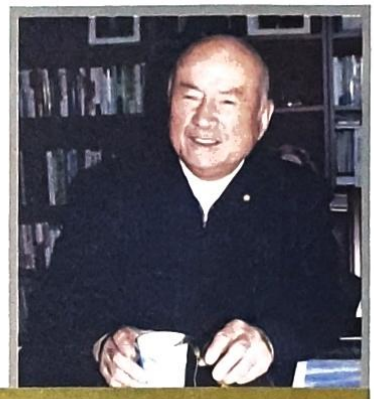
♣ 십자가 주문제작
※성전, 기도실, 선교실, 가정에 설치

춘천시 동면 장학리 514
☎033)244-3353 · 011-9791-0337

예찬 십자가는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를 온누리에 전하고 싶은 간절한 마음으로 오직 믿음과 기도로 세워진 기업입니다.

※예찬 십자가의 판매금의 수입전액 중 5%는 춘천연탄은행에, 5%는 중국 생명길신학교 선교기금으로 사용됩니다.
예찬 십자가와 함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복음사업에 동참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을 변화시키는 힘! 가나안 운동



※이번시간에는 가나안농군학교 김범일(제2가나안농군학교, 원주 신림)장로와의 인터뷰입니다.

21세기 가나안운동과 복민주의 영성

"가나안농군학교의 정신은 근로, 봉사, 희생"
"가나안운동은 사회와 세상을 구원하고자 하는 열망. 한 사람이 희생하면 가족이 살고, 교회가 살고, 민족이 살아난다. 이를 위해 일하는 운동, 일하는 사상."

현재 한국 사회는 총체적 난국 앞에서 위기와 도전의 새로운 선택의 기로에 서 있다. 한반도의 정세는 불안하고 통일한국의 주도적 역할을 해야 하는 남한 사회는 정치적 혼란과 양극화 현상, 국론의 분열, 경제적 위기, 도덕성의 파괴, 사치와 낭비, 유흥과 향락문화로 만연되어 있다. 세계화와 도시화라고 하는 피할 수 없는 시대적 흐름 앞에서 농촌사회는 심각한 위기를 맞이하고 있다. 또한 한국 사회에 희망을 주고 새로운 시대를 향한 개척과 도전의 정신을 불어넣어 주어야 할 한국교회가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잃어가면서 사회적인 영향력을 상실하고 있다. 일가 김용기 장로(이하 일가 선생)가 설립한 가나안농군학교는 일제 식민지와 6.25전쟁으로 피폐해진 대한민국을 근대화된 나라로 일으켜 세우는데 크게 기여하였다. 21세기 세계선교운동으로 비상을 꿈꾸며 새롭게 도약하고 있는 가나안운동을 통하여 이 시대가 필요로 하는 기독교영성의 본질이 무엇인지 살펴보도록 하자.

일가 선생의 사상을 복민주의 운동이라고 부르는데, 복민주의란 무엇인가?

'복민주의'란 가나안운동을 총체적으로 정의하는 말이다. 복민주의에는 정치적, 경제적, 신앙적인 세 가지 의미가 담겨있는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과 함께 하나님의 백성들이 감당해야 하는 사명과 의무를 강조한다. 우리 삶의 터전을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경제적으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으로 만들어 세우는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게 될 때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복민이 될 수 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한 나라의 모든 백성이 복민이 되어서 정치적, 경제적, 신앙적인의 의미의 가나안을 건설하려는 운동이라고 말할 수 있겠다.

시대가 변화하고 있다. 가난의 문제가 해결된 우리 사회에서 가나안농군학교가 중점적으로 추구하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얼마 전에 반기문 유엔사무총장을 만나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다. 반 총장은 현재 세계가 해결해야 할 3대과제를 빈곤, 전쟁과 분쟁, 마약과 에이즈 등의 질병문제라고 말하였다. 빈곤문제는 21세기에도 전 인류가 함께 해결해야 할 가장 중요한 첫 번째 과제라고 할 수 있다. 우리가 가난에서 벗어났다고 가난의 문제가 완전히 해결된 것은 아니다. 아직도 전 세계적으로는 빈곤으로 고통당하는 수많은 영혼들이 있다. 그런데 빈곤의 문제는 구제만으로는 해결될 수가 없다. 반 총장은 빈곤문제를 언급하면서 스스로 삶의 터전을 개척하려고 하는 가나안농군학교와 같은 정신이 없으면 해결될 수 없음을 강조하였다. 가나안농군학교의 정신을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근로, 봉사, 희생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것은 곧 성경에서 강조하고 있는 기독교정신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근로사상은 빈곤문제에 대해 한 해답이 될 수 있다. 가나안농군학교는 우선적으로 빈곤문제 해결을 위해서 정신개혁과 생활의 변화를 혁명적으로 이루어 나가는 일에 더욱 관심을 가지고 노력하고 있다.

가나안농군학교가 추구하고 있는 가나안정신에 대해 이야기해 달라.

두 종류의 인생이 있다. 유람선인생과 구조선인생이다. 유람선인생은 삶을 즐기는 것에 목적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말한다. 반면에 구조선인생이란 사회와 세상을 구원하는데 목적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우리 가나안운동은 존재이유에 대한 분명한 목적이 있다. 사회와 세상을 구원하고자 하는 열망이다. 그런데 세상은 말로 외친다고 저절로 구원되어지는 것이 아니다. 나는 아버님을 따라 평생을 산속에서 농사를 지으며 지금까지 살아왔고, 앞으로도 그렇게 살아갈 것이다. 평생을 황무지를 개간하며 산속에 와서 온몸을 투신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그러나 이러한 대가를 치루지 않고는 아무것도 이룰 수 없다. 말씀드리고자 하는 핵심은 가나안농군학교에서 강조하는 복민주의운동은 '하라'는 운동이 아니라 내가 먼저 '하는' 운동이라는 것이다. 내가 스스로 실천하는 운동이 아니면 그 어떤 운동도 성공할 수 없다. 근로, 봉사, 희생은 실천 없이는 공허한 사상이다. 열심히 근로하면 빈곤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 겸손히 낮아져서 봉사하고 희생하게 되면 삶의 보람을 느낄 뿐만 아니라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된다. 한 사람이 희생하면 가족이 살고, 교회가 살고, 민족이 살아난다. 이것을 하자는 것이 가나안운동이다. 결론적으로 가나안운동은 일하는 운동이요, 일하는 사상이라고 할 수 있다.

일하는 사상이란 무엇인가?

우리 아버님(일가 선생)은 평생 하나님사랑, 인간사랑, 흙(자연)사랑을 강조하셨고, 근로, 봉사, 희생을 삶으로 실천하셨다. 우리 민족이 역사적으로 빈곤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던 가장 큰 이유는 양반사상 때문이었다. 양반사상은 일하지 않는 사상이었기 때문에 빈곤문제를 해결할 수 없었다. 아버님은 평생을 일하며 사셨다. 가장 부끄러운 사람은 일안하고 먹고 사는 사람이고, 가장 훌륭한 사람은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 일을 많이 하는 사람이라고 가르치셨다. 요즘의 젊은 훈련생들을 보면 똑똑하기는 한데 일하기를 싫어한다. 이러한 모습으로는 민족의 미래가 없다. 일하는 사람, 일하는 젊은이를 길러내야 한다.

현재 가나안운동이 21세기를 바라보면서 중점적으로 준비하는 것은 무엇인가?

현재 가나안농군학교가 10개국에 개척되고 있다. 앞으로 가나안운동은 가나안농군학교가 필요한 해외 여러 나라에 가나안농군학교를 개척해 나아갈 것이다. 인도 가나안농군학교가 비하르에서 개척 중에 있고, 아프리카 탄자니아에도 땅을 30만평 기증받아 놓은 상태이다. 또 한 가지는 가나안농군학교가 추구하는 사상과 정신을 갖춘 사람을 길러내는 일에 힘쓰려고 한다. 현재 연세대학교와 협력하여 세계지도자훈련센터를 건축 중이다. 훈련센터가 완공되면 해외 가나안농군학교에서 추천된 지도자 30명을 4개월 동안 훈련하는 프로그램이 진행될 것이며, 대학원과정으로 발전시킬 계획을 세우고 있다. 이렇게 되면 가나안운동은 지금까지의 계몽운동에서 새로운 대중을 위한 전문교육훈련의 장으로 도약하게 될 것이다. 춘천지역에서도 가나안운동과 정신을 연구하고 지원하며, 홍보하는 다양한 그룹들이 생겨났으면 하는 바람이다.

하나님나라를 꿈꾸는 젊은 기독청년들에게 당부하실 말씀은?

요즘 젊은이들은 너무 똑똑하다. 그러나 하나님은 단순한 사람을 쓰신다. 단순한 믿음을 가질 때 하나님만 의지하고 새로운 사역의 현장을 개척할 수 있다. 아무리 우리 사회가 3만불, 4만불 시대가 되어도 근로, 봉사, 희생의 삶을 실천하는 젊은이가 없다면 미래는 암울하다. 어떠한 일이든지 돈이나 건물로 일이 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되어 삶의 터전에서 사역의 현장을 일구어 낼 수 있는 사람만이 가장 훌륭하고 믿을만한 자원이다. 한사람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이다. 미래를 개척하고 만들어 나아가는 젊은 청년들이 되라고 당부하고 싶다.

[진행 · 조영춘, 글정리 · 정재호, 사진 · 김미경]



김 범 일 장로는 현재
- ○제2가나안농군학교 교장
- ○가나안농군운동세계본부(W.C.M)총재
- ○한국 농어촌선교단체협의회장
- ○국제 농 · 어업의원 연맹 고문
- ○원주포럼 회장으로 섬기고 있다.

※ 일가 김용기 선생의 사상과 삶을 배우며 가나안운동에 동참하기를 원하시는 분은 연락 바랍니다.(문의: 춘천성시본부 256-1260, 010-2030-8150)



인도 비하르에서의 3년간의 사역을 마치며...

나마스떼~(안녕하세요!)

저는 인도 비하르의 선교사 김신혜 자매입니다.

2004년 비하르선교협의회와 늘사랑교회, GMP의 파송으로 인도 비하르에서 3년간 주님의 은혜로 사역을 잘 감당하고 마무리하였습니다. 3년 동안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이끄셨음을 고백하며 감사하는 것은 하나님의 귀한 사역에 이 부족한 자를 하나님나라의 확장을 위한 한 일원으로 사용하여주신 것입니다. 지극히 작은 자를 일꾼삼아 주신 하나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맡겨주셨던 일은 주로 어린이사역이었습니다. 3년 동안 인도 비하르 땅에 하나님의 많은 역사들이 일어났지만 그중에서도 여러분과 지금 나누고 싶은 것은 제가 오기 몇 달 전인 8월에 열렸던 주일학교 교사훈련과 여름성경학교 이야기입니다.

주일학교 교사훈련

주님의 인도하심으로 낸 땅에 헤딩하는 기분으로 이렇게 시작됐습니다. 기존문맹퇴치학교의 교사를 대상으로 하여서 시간을 내기가 쉽지 않았을 뿐더러, 지금이 한참 농번기라 모내기를 하느라고 더욱 시간 내기가 어려웠습니다. 게다가 이들은 아담이 누군지도 모르는 상태이기 때문에 말씀을 가르치는 것은 더욱 쉽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영적인 싸움이 가장 큰 장애물이었습니다. 훈련받는 교사들도 그랬지만 저 또한 익숙과 버릇으로 힘들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고통을 보상이라도 해주시듯 훈련시간만큼은 큰 은혜를 내려주셨습니다. 많은 어려운 일들을 보고 겪으면서 기도하게 하시고, 소망을 주셨습니다. 훈련 마지막 날, 소감발표시간에 한 교사는 이 훈련을 통해 예수님이 새 삶을 주시는 것에 대하여 처음 들었는데, 자신도 새 삶을 살고 싶다는 고백을 하였고, 주님의 빛이 교사들에게도 서서히 임하는 것을 보게 하셨습니다. 또한 천국에 관한 소망을 마음에 그리게 하시고 함께 천국에서 꼭 만나 이 훈련받던 시간을 기억하며 맛있는 카레를 먹자고 웃으며 약속까지 했습니다.

여름성경학교

"나는 세상의 빛"이라는 주제로 파트나와 자므이 두 지역에서 두 번에 걸쳐 진행한 성경학교에 약 700명(파트나 250명, 자므이 450명)의 아이들이 참석했습니다. 코흘리개 아이부터 먼 곳에서 목발을 짚고 걸어온 아이, 한 마을에서 단체로 100여명이 즐맞추어 오기까지 하나님이 구석구석에서 아이들을 불러모아 주셨습니다. 게다가 교사들도 온몸으로 기쁘게 헌신하였습니다. 그리고 현지인 사역자의 주도로 이루어져 더욱 의미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성경학교를 통해 곳곳에 700개의 주님의 빛을 심으셨습니다. 이 작은 빛이 마을과 가정과 학교를 변화시킬 줄 믿습니다.

사역을 마무리하며

3년의 사역을 마무리하면서 지금까지 주님이 맡겨주신 사역을 잘 감당하였는가를 스스로를 뒤돌아볼 때 하나님은 처음 날 부르셨을 때의 부르심을 기억나게 하셨습니다. 어떠한 사역을 멋지게 해서 보여주고 나타내는 것이 주님의 부르심이 아니라, 이 땅에서 예배자로 증보자로 사는 것이 하나님의 처음 부르심이었습니다. 그리고는 그 부르심에 맞게 살도록 주님은 이끄셨습니다.

하나님은 제가 한국에 온 후 시편 32:8절의 말씀으로 계속해서 이끌고 계십니다. "내가 너의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의 앞길을 한 걸음씩 인도해주십니다. 그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원합니다. 또한 기도와 후원으로 섬겨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리며 계속해서 인도 비하르의 어린이와 교사들을 위해 관심과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2007. 10. 김 신 혜 드림







척박한 땅 인도에 광염미션스쿨이 세워져...

광염미션스쿨은 광염교회가 지난 10년 동안 뿌려온 인도사역의 결실이라고 할 수 있다. 인도 비하르선교협의회와 CCF는 인도 마을마다 교회를 세우자는 전략 하에 회원교회에 각 지역을 할당받았는데, 광염교회가 맡은 곳은 자무이 디스트릭의 '친베리아마을'이었다. 효과적인 선교전략을 고민하던 중 마을 중심에 중·고등학교 미션스쿨인 '광염미션스쿨'을 세우게 되었다. 현재 교실13칸과 교회1등을 건축완료 중에 있다. 앞으로 이 미션스쿨을 통해 종합적인 선교사역(문맹퇴치학교, 가나안농군학교 훈련센터,김진만 선교사 내외, 교회개척)이 예상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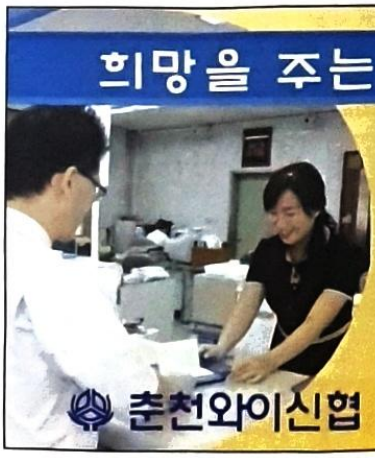
※ 헌당예배 2007년 11월 25일 예정.
[헌당예배와 집기류를 위한 많은 후원과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문의:010-2093-5007]











희망을 주는 곳! 사랑이 피어나는 곳!

신협은 작은것을 소중히 여깁니다.
· 공과금납부 · 자동이체 · 예금상담 · 대출상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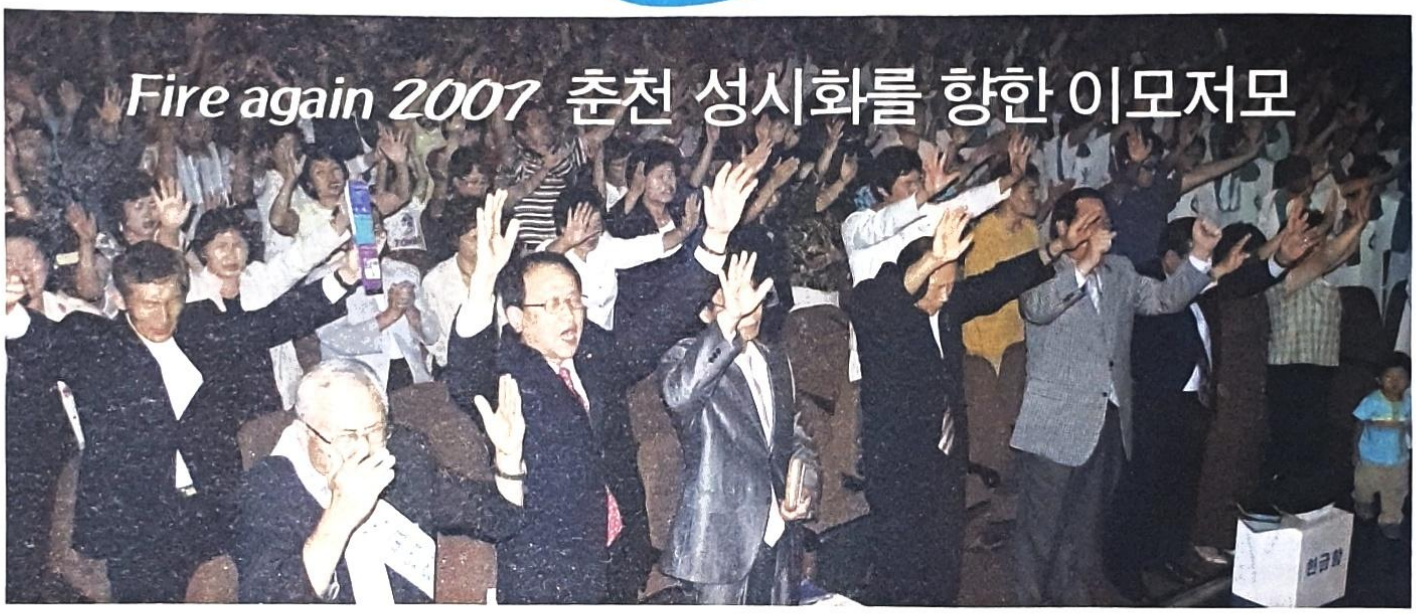
푼돈도 맡겨주시면, 정성껏 관리하겠습니다.

운교본점: 255-1007 (1층신협, 3층기독교연합회, 4층CBS방송)
강남지점: 261-1002 (퇴계 현진에버빌 2차 옆)

춘천와이신협



Fire again 2007 춘천 성시화를 향한 이모저모



감사의 계절에 추억의 기억들을 모으고 담아 무지개처럼 곱고 맑게 피어나와 가지마다엔 열매로 나뭇잎들마다는 단풍으로 물들며 절정을 이루고 있는 황홀한 계절이다. 흐트러지듯 단풍들이 거리마다 산허리마다 차가운 늦가을의 안개 속에 꽃보다 더 아름다워 가던 발길, 잠시 머물며 흡날리는 영광의 흔적들로 인해 마지막 남은 진액으로 주님 앞에 감사로 제사 드리듯 하는 그 영광의 한기 속에 잠시 두 눈을 감아 본다.

이제 각 기관들마다 총회들을 열어 새로운 일꾼들을 뽑고 새롭게 규약들을 제정하고 새로운 회기를 준비하여야 하는 숨 가쁜 시간이 되었다.

뒤돌아보는 한해가 너무나 감격스럽다. 특히 성시화를 위해 모두가 함께 한 가지 한 가지 사역들을 일궈나가며 울고 웃으며 흘렸던 모든 일꾼들의 눈물과 수고의 땀방울은 반드시 주님께서 큰상으로 갚아주시리라 확신해 본다. 이들의 영혼 속엔 무지개보다 더 찬란한 아름다움이 있다. 이는 10월의 단풍에 비할 수 없는 은혜의 간증이기에 더욱 놀립기까지 하다.

10월의 마지막 날, 평화교회에서 교역자연합회와 기독교연합회의 총회가 장로교연합회 목회자 세미나를 거쳐 감격스럽게 열렸다. 단체가 서로 연합하여 한 자리에 모였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하다. 게다가 수고하셨던 회장단들의 겸손한 모습도 멋있었고 다시 수고하실 새임원단들도 든든하다. 새해부터 총회측제가 되면 참 좋겠다는 생각과 함께 이분들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감사와 뜨거운 희망을 볼 수 있었다.

주마등처럼 한해를 장식하며 지나갔던 여러 가지 일들이 생각난다.

먼저, 임원회의 진행이 겨우 갖춰가던 첫 상황에서도 은혜롭게 시청과 함께 하는 공조 속에 우뚝 서서 주님의 성탄의 기쁨을 시민들과 함께 나눴던 성탄트리점등식, 특별한 의미를 이어 가며 모든 교회와 선교단체들의 교제를 이룬 신년교례회, 또 심일절 기념예배와 뜨거웠던 부활절 십자가대행진과 부활절 연합예배, 그리고 목회자 세미나와 광복절예배의 진지한 열기가 떠오른다. 무엇보다도 춘천의 성시화 선교대회를 통한 다양한 문화적 선교적 연합접근 등 하나하나 행사들마다 앞장서 방향을 제시하며 힘을 연 이원호 회장님과 세심하게 준비하고 땀 흘리며 문제점들을 해결하려던 이주호 총무 목사님과 임원들, 그리고 많은 장로님들의 적극적인 기도와 헌신이 아름다운 제사로 하나님께 분명 큰 영광으로 드려졌을 것이다.

올해 기독교의 행사들엔 특별한 의미가 있었다. 그 특징을 몇 가지 찾아본다면,

1. 교계와 시청의 유기적인 협력과 연합이 아름답게 일궈졌다.

성탄절트리와 십자가대행진 등 다양한 행사들마다 시청 공무원들의 관심어린 협조와 함께 유기적인 관계를 가지면서 서로 함께 했던 복된 시간들이었다.

2. 모든 시민들과 함께 하려는 노력을 통해 서로의 필요성을 인식했다.

많은 행사에 시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참여할 수 있는 기회의 장으로 마련코자 최선의 노력을 기울였다. 선교대회 장소도 많은 재정적 희생에도 불구하고 누구나 부담 없이 옴수 있는 강원대 백령문화관을 택한 것도 그 일환이었다. 또한 포럼을 통해 시민들의 각계각층의 영역별 지도자들을 만났던 것도 큰 특징이라 하겠다. 더욱 선교대회를 통해 진행된 성시화 축구대회에는 개인택시조합원 및 경찰청에서도 함께 어울렸고 특히 기아체험 걷기 대회엔 각계의 관심과 함께 많은 시민들과 함께 할 수 있었던 새로운 아이템이었다. 또한 문화의 산실인 강원기독 미술인 전시회가 같은 시기에 열리면서 문화와의 만남을 이어간 것도 대단한 성과였고 좋은 방향성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3. 춘천을 뛰어넘어 세계화를 향해 나아가는 해였다.

이번 선교대회는 가히 춘천이 세계인들과 함께 하는 자리였다. 성시포럼엔 세계적 영향력을 가진 다양한 지도자들이 함께 했다. 스위스 로잔대회의 주요멤버이며 국제 기독교계의 대표적 선교학자인 '루이스 부쉬'와 함께 미국 뉴욕과 휴스턴에서 강력하게 연합을 주도하고 있는 '탐 빅터' 박사 그리고 인도의 비하르에서 10년 이상을 사회개발에 참여중인 이영길 선교사와 일본 동경 성시운동지도자들의 참여 등으로 네트웍을 형성한 성시화의 방향성을 볼 수 있었다.

이제 새로운 회기를 맞아 한층 더 도약하며 앞으로 나아가게 될 것을 기대해 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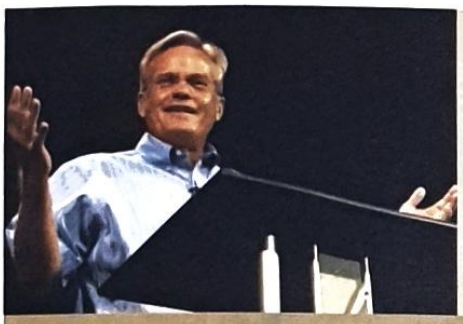
첫째, 내부적인 변화가 가속되어야 한다. 즉 이 도시의 진정한 변화를 위한 "한 교회"를 회복해야 한다. 그리고 모든 영역별로 가장 잘할 수 있는 은사별로 목회자나 성도들의 전방위적인 네트웍이 이뤄져야 한다. 내부적 재배치를 통해 인적 물적인 연합이 실질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마음을 활짝 열어야 할 것이다. 둘째, 모든 시민들을 품고 함께 하는 일에 더욱 적극적이어야 한다. 주님 말씀처럼 세상을 품고 사랑하는 운동이 복음운동일 것이다. 시민들과 함께 호흡하고 그들의 필요 속에 적극적으로 동참하여야 한다. 셋째, 국제화의 기조를 적극적으로 이어가야 할 것이다. 이미 40개 이상으로 성장한 각시도의 성시운동을 적극 지원할 뿐만 아니라 앞서가는 도시와 도움이 필요한 도시와의 연계를 통한 국제적인 네트웍을 형성해서 우물 안에서 벗어나 지역의 경제와 문화 교육의 필요성에도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일들이 더 많이 있어야 할 것이다.

2007년을 블붙는 해였다면 새해는 붉은 불로 변화를 이루는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해가 되길 간절히 소망해 본다. [춘천성시화운동본부 사무총장 조영춘]

SSO TOTAL DESIGN
쏘인테리어
교회건축연구소
대표권 승 갑 장로(제일장로교회)
033-242-5573 / 018-330-0433
1 OFFICE : 춘천시 퇴계동 891-1 대원B/D 7F
2 OFFICE : 춘천시 효자3동 607-2
STUDIO : 춘천시 서면 당림1리 81-5

춘천성시합창단
www.club.cyworld.com/ccachoir
(음악에서 춘천성시합창단을 치세요)
너리디자인
간판,현수막
십자가네온
현황판,실사
(사진출력)
인쇄
(명함,포스터,팜플렛)
TEL : 033)255-8644
FAX : 033)252-6676
H. P : 010-6383-8228

탐 방



윌로우 크릭 교회(Willow Creek Church)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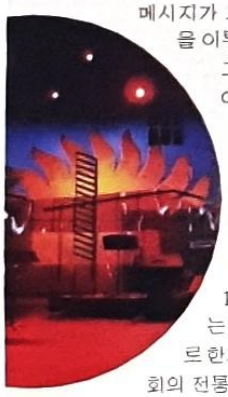
크로우 크릭 교회(Willow Creek Church)는 미국 일리노이주에 위치한 매우 의미 있는 교회이다. 담임 목사인 빌 하이벨스(Bill Hybels) 목사는 1975년, 그 당시 사도행전과 로버트 슐러 목사의 책을 읽으며 23세 나이의 신학생으로 윌로우 크릭(Willow Creek) 극장을 빌려 교회사역을 시작하게 된다. 그것도 일개의 보통교회가 아닌 기존 교회의 전통과는 다른 완전히 새로운 목회 철학과 사역을 가지고 말이다. 그 이후 윌로우 크릭 교회는 이러한 빌 하이벨스 목사의 비전(vision)과 결단을 가지고 "하나님의 방식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하나님의 교회"로 전력을 다하여 오늘날 미국에서 가장 큰 교회중의 하나로 성장하게 된 것이다.

세계의 교회탐방 윌로우 크릭 교회 편입니다.

빌 하이벨스 목사와 교회의 시작

미국 미시간 주에서 사업을 성공적으로 경영하는 기독교 집안에서 태어나 성장한 빌 하이벨스 목사는 장차 그의 부친의 가업을 잇도록 되어 있었다. 그가 몸담았던 게혁장로교회(Christian Reformed Church)가 그에게 성경의 귀중함, 가정의 중요성, 믿음의 충실함과 인내 등을 가르쳤지만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원의 선물은 깨닫지 못하게 하고 있었다. 그가 17세 되는 해 Awana 대회에 참석하게 되어 처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적으로 영접하여 구원의 감격을 누리게 되었다. 빌 하이벨스 목사는 그 당시의 감격을 이렇게 회상하고 있다. "사랑으로 인한 거저 주는 구원의 선물을 깨닫았을 때 가슴이 뜨빌힘 것 같았다." 이때부터 그의 가슴에 심겨진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의 메시지가 그의 삶에 혁명을 이루었다.





그는 8주간의 남미 여행 중 해변이 보이는 한 호텔 방안에서 무릎을 꿇고 자기의 삶을 하나님의 영원한 것에 헌신하는 기도를 드리게 된다. 남미에서 돌아온 후 시카고에 있는 Awana 본부에서 일하면서 청소년과 젊은이들을 위한 "Son City" 라는 전도 모임을 시작하게 되었다. 그 후 1973년에 약150명으로 시작한 이 모임은 2년 후 1975년에는 약 1,200명까지 참석하는 규모로 커졌다. 그러나 어려모르한계를 느낀 빌 하이벨스 목사는 사도행전을 읽으며 기존 교회의 전통과는 다른 목회의 비전을 품게 되었다. 이에 출범한 것이 윌로우 크릭 교회이다.





교회의 위기

윌로우 크릭 교회에 위기가 없었던 것은 아니다. 초기부터 1981년까지 여러 차례 교회의 위기가 있었는데 1,800명의 교인 중 약 200명 이상이 교회를 떠났고, 교역자들 중에서도 1/4이, 리더의 1/3이 교회를 떠나는 일도 있었다고 한다. 이 어려운 상황이 빌 하이벨스 목사에게는 오히려 자기의 목회 철학과 비전을 다시 한 번 점검하며 갱신하는 계기가 되었고 윌로우 크릭 교회의 장래를 하나님께 전폭적으로 맡기는 변화가 있었다.

목회 철학

윌로우 크릭 교회는 하나님을 높이고, 신자들을 교화하며, 복음을 전하고, 사회에 기여하는 등 4가지 목적을 위해 존재한다. 또한 다음의 기본적인 원리 위에 교회가 기초하고 있는데 첫째, 모든 신자들은 그리스도와의 동행과 자신의 믿음을 증거 해야 할 책임을 가지고 있다. 교회는 비신자 친구들이 교회에 올 때, 그들이 거부감 없이 쉽게 들을 수 있도록 그리스도의 메시지를 그들의 삶에 적절하게, 창조적으로, 그리고 오늘날의 스타일로 전달하도록 설계된 예배를 제공함으로서 신자들의 복음전도 노력을 보완하고 있다. 둘째, 처음 예수님을 믿으려는 사람(seeker)이 갖는 필요들은 기존 신자의 필요들과는 다르다. 그들은 기본적인 기독교 원리들에 대한 지식이 거의 없는 상태에서 온다. 그러므로 교회는 이들이 이해할 수 있는 수준으로 사역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그러므로 교회는 처음 기독교를 찾는 사람들의 필요들을 채울 수 있도록 특별하게 디자인된 예배- 주말 구도자 예배를 제공한다. 셋째, 신자들은 처음 신앙을 갖는 사람이 믿음을 결정하는 과정과 그리스도 안에서 성숙으로 나아가는 그 개인의 신앙의 여정을 존중해야 한다. 넷째, 모든 신자들은 그리스도의 몸(교회)의 유익을 위해 하나님에 의해 은사를 받은 사역자이다. 교회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의 몸을 무장시키고 성숙하게 하는 절대적인 지체로서 하나님에 의해 은사를 받은 자들임을 인정하기 때문에, 모든 신자들이 봉사와 사역에 참여하도록 이들을 동원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

교회의 장점

다른 대형 교회들의 성장의 동력은 교인들의 수평이동에 기인하는 바가 크다. 그러나 윌로우 크릭 교회는 새로운 신자들의 출석률이 대단히 높았고, 이것이 성장의 주요인이 되었다. 빌 하이벨스 목사는 교회에 안 나오는 이들을 목표로 하고 그들이 교회에 안 나오는 이유를 분명하게 파악하여 장애물들을 철저하게 제거하였다. 특히 감각적이고 집중적 장에 요소들을 제거하였다. 또한 교회 구조를 수평구조로 바꾸어 스텝들과 리더들의 독립성을 인정하는 방식을 유지한다. 이렇게 해서 모아들인 구도자들을 소그룹으로 조직, 조직 활동을 강화하여 관계를 형성하였다. 또한 선교에도 힘을 썼는데 교회는 이들의 은사와 능력을 발굴하여 선교적으로 활용하도록 가르치고 교회에서 훈련하여 세상으로 파송하는 원칙을 잘 감당하였다. 교회는 한 국식의 부흥집회가 없으며 지도자들과 각각의 분과들을 위한 세미나가 1년에 1-2차례 실시될 뿐이다. 윌로우 크릭 교회의 영적 힘은 중보기도그룹이라고 말한다. 예배가 진행되는 동안에 지하에서 약 100여명이 집중적으로 기도하는 그룹이 있다는 것이 그것을 단적으로 말해준다.

현재 윌로우 크릭 교회는 현재 약 20,000명이 넘는 회원들이 예배를 참석하며 하나님나라를 위해 애쓰고 있다. 빌 하이벨스(Bill Hybels) 목사는 아내 Lynne 사모와 1남 1녀(Todd & Shauna)를 두고 있다.

[편 집 부]

나눔과 기쁨 www.joyofsharing.org

우리 동네에서 나눔공동체가 시작됩니다.

♣ 나눔과 기쁨 은
희년 봉사 사업 나눔을 실천하기 위하여 2004년 7월 9일에 결성된 사단법인체로, 민간사회안전망구축을 통해 선진국형 복지이념을 구현하고 시민사회에 앞장서고자 한다.

♣ 민간사회안전망이란?
여러분 이웃을 돕기 위해 동네가 하나 되어 '나눔공동체'를 구축하는 민간차원의 사회안전망입니다. 전국 읍, 면, 동의 자생적 동기(우, 마을 중심으로 각 지역에 '나눔공동체'를 조직하여 실시일반으로 후원금을 모아 정부의 사회안전망으로부터 멀어 있는 여러분 이웃을 지원

♣ 함께 하는 사람들
상임대표 : 최인규(춘복동안전교회 담임목사)
손봉호(전 동덕여대총장)
서경석(기독 교사회역임 공동대표)
고 문 : 김우준(한국대학생선교회 총재)
이세중(전 대한변호사협회 회장)
서민호(전사회공동선 운동연합 상임대표)
공동대표 : 홍정길(남서울은혜교회 담임목사)
복한 옴(국제제자훈련원장)
이종윤(예향 교회 담임목사)
김지원(희사법률사무소 고문)

♣ 개인 후원안내
우리 동네 나눔공동체를 위해 후원해 주십시오. 어려운 이웃을 위해 수입의 0.2%를 나누어 주십시오. 후원해주시는 개인은 ◎나눔과기쁨의 회원이 됩니다.
●원하시는 분은 CMS(자동이체) 신청서를 보내드립니다.

♣ 단체 후원안내
우리 동네의 어려운 이웃을 돕기 위해 <나눔과기쁨> 업체들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면 교회, 대·중소기업, 식당은 물론, 약국은 약을, 병원은 의료지원, 학교는 자원봉사, 각종사업체는 필요에 따라 도우실 수 있습니다. ●현금후원이 아닌 경우에도 세제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후원계좌 안내
우리 계좌 농협 301-042-51-013893
예금주 (사)나눔과기쁨 춘천 지부
● 춘천시 동네누리(지역 활동기)를 모집합니다. 봉사를 원하시는 분들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춘천시 나누미 우 귀 성 목사(사회복지사)
춘천시 후평동 745-9 후평감리교회
Tel 033-251-0675 / Fax 033-251-0675
H.P 017-370-0675

한국국제기드온협회
춘천기드온캠프
회장 심 인 섭 장로
HP 011-510-9471
목 적 : 성경 무료 기증
(군인 학교 병원 경찰 교도소 호텔 등)
★ 순방교회 헌금 ★ 회원헌금 ★ 기타
*새로운 회원을 환영합니다 - 청로회원

| 영혼의 양식

가장 큰 능력 — 로마서 8:37



장춘근 목사
[지내리감리교회]

로마서 8장은

예로부터 바울신학의 백미로 일컬어져 왔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특별히 로마서 8장 31절 이하 바울의 고백 한마디 한마디는 그의 뜨거운 가슴에서 뿜어져 나오는 우렁찬 믿음의 함성과도 같습니다. 바울이 아마도 꽤 톤을 높여 이 구절들을 기록해 나간 것 같습니다. 아니 매우 흥분되어 있는 바울의 마음을 읽을 수 있습니다. 그는 우리가 무슨 일을 만나든지 넉넉히 이길 수 있는 길(37절)이 있다고 말합니다. 여기 '넉넉히 이기다'라는 원어를 보면 '휘페르'(위에, 능가하여)라는 전치사와 '니카오'(이기다)라는 말의 합성어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즉 이 말은 겨우 이기는 정도가 아니라 '압도적으로 이기다' 혹은 '완전히 이기다'라는 뜻이 됩니다. 즉 바울에 의하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일을 만나도 압도적으로 이길 수 있는 길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31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외칩니다.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라고 말합니다. 내용인즉, 만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시면 대적할 자가 없다는 말입니다. 이 구절은 33절로 연결됩니다.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송사(고소)하리요? 역시 고소할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 구절은 특별히 법정용어인데, 사단이 아무리 크리스천을 하늘법정에 고소한다 하더라도 의로우신 재판장이신 하나님이 무죄를 선언하시면 크리스천은 승소판결을 얻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34절에서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정죄하리요. 35절에서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으리요 아무도 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매우 강력한 하나님의 능력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작용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따라서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일을 만나든 압도적으로 이길 수 있는 능력,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섬세하게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심이 가장 큰 능력인 것입니다.

35절에는 그리스도인들이 경험할 수 있는 매우 색다른 7가지 종류의 고난들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환난(쓸립시스)은 외부로부터 오는 모든 종류의 고통입니다. 곤고(스테노코리아)는 내면적으로 당하는 불안 걱정입니다. 핍박(디어그모스)은 진리 때문에 당하는 부당한 박해입니다. 기근(리모스)은 굶주림입니다. 적신(귐노테스)은 옷이 없어 헐벗은 상태입니다. 위험(킨뒤노스)은 천재지변으로 인한 어려움입니다. 칼(마카이라)은 권력에 의해 당하는 생명의 위협을 말합니다.

바울은 이 험형색색의 7가지 고난을 다 당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나를 위해 주시니까, 완벽하게 이겨나갈 수 있었던 것이지요. 그러니 이찌 바울이 흥분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인생에서 내가 발휘할 수 있는 가장 큰 능력, 그것은 전능하신 하나님이 섬세하게 나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그 능력으로 여러분도 가지가지의 고난들을 압도적으로 이겨나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 사색의 창

젊은이여 이 가을에!



고성 연 간사
[순복음춘천교회 행정간사]

부덥고 지루했던 여름은 가고 가을이 찾아왔다. 하늘은 높푸르고 숲에서 부는 바람이 깊가의 코스모스를 어루만지는 새 계절... 가을이 되면 사람들은 영원한 고향에 대한 향수에 허전해지곤 한다. 이 허전함을 달래기 위해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되고 그래서 이 가을을 사색의 계절이라 불리는 것이 아닐까? 그러나 사색도 고향을 잃은 존재로서의 허허로움을 다 채우지는 못한다.

사실 현대인은 유독 가을이라는 이유를 떠나서도 항상 존재의 뿌리를 잃은 채 살아가고 있다. 인간을 참인간 되게 하는 근본적인 물음과 그곳에 대한 추구는 덮어두고, 단지 단세포처럼 살아가기에 바쁜 것이다. 현대의 젊은이들은 이미 기성인들이 제시한 전통가치에 식상해하며 새로이 밀려오는 서구문화의 물결에 더욱 자신을 가누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절대 진리를 내놓고 돌파구를 마련할 수 있는 주체는 도대체 누구인가? 어떤 이들은 과학이 그 일을 해낼 수 있다고 한다. 그러나 과학은 이미 지난 몇 세기 동안 기계화의 물질문명으로 역사 속에 '비인간화'를 심화시켜가고 있지 않는가? 또 다른 이들은 종교만이 그 주체가 되어야 한다고 한다. 그러나 한 편으로 생각해볼 때 이미 과학문명에 세뇌된 종교 이후의 세대를 선인해 버리지 않는가? 종교는 세상의 변두리로 밀려나 장례식이나 도와주는 하찮은 것으로 몰락해 버렸다는 소리도 들려온다. 더욱이 국내외적으로 메스컴에 주요기사가 되었던 종교의 타락상을 오늘 한국에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더 이상 종교를 신뢰할 만한 것이 못되게 하고 있다.

그러나 나는 완전히 절망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종교에는 한 가지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사실 종교의 타락은 그 진리 자체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그 진리를 수호하고 실현하는 인간에게 문제가 있을 뿐이다. 이 시대에도 종교는 그 영원한 진리를 보전하여 안과 밖에 감추고 드러난 빛을 계속 지니고 있다. 18C이후 계몽주의 사상이 세계를 휩쓸기 시작하면서 사람들은 인간의 이성과 자유의지로 유토피아를 건설할 수 있다는 생각에서 신을 떠나 인본주의를 택했다. 그 결과 신으로부터 자유를 얻었는지 모르지만 인간의 이성과 의지로 유토피아를 건설한다는 인류문명이 1,2차 세계대전을 불러왔고 오늘날의 현실 세계는 혼집스럽기만 하다. 소위 "자유 어지러움"에 걸린 것이다. 이제 식자들은 인간이 과연 이상적인 존재에 대해 의문부호를 붙이기 시작했다. 나는 초기 기독교적인 정신 부흥이 일어나지 않으면 한국도 세계도 다 종말을 맞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다만 서구에는 긴 기독교의 셈이 있어 난관이 닥쳐올 때마다 그에 대한 반작용으로 종교적 부흥의 셈이 터져 균형을 잡곤 했다. 그래서 한국에서도 그러한 반작용이 일어날 힘을 키워야 하는데 그 주역이 이 세대를 살고 있는 젊은이들이라고 본다. 그 모든 힘의 근원은 종교의 경전, 즉 하나님의 말씀에서 파생되는 진리라고 본다.

젊은이여! 종교의 진리는 살아있다. 우리의 눈으로 그 가능성을 확인해 보지 않겠는가? 이 가을, 종교의 경전, 하나님의 말씀! 그 영원한 진리에 눈을 한번 돌려 보자. 이 가을에!!

예스비
에스비 브라운상가 이전 오픈

최고의 품질과 저렴한 가격!
"당신을 20대의 아름다움으로 초대합니다."
대표 전 순 천 집사(순복음춘천교회)
☎ 253-2001
위치 브라운상가 프리머스 극장 입구

제시뉴욕 · 레모네이드
럭셔리한 아름다운 멋

결혼예복 · 숙녀복 전문
패 · 션 · 리 · 더 제시
모녀가 함께 입는 명품
많은 연예인이 즐겨 입는 명품
제시뉴욕 운선점
대표 전 순 천 집사(순복음춘천교회)
☎ 252-7262
위치 조양동 신한은행강원본부 앞

하늘의 선물과 오는 세상의 권능들을 맛보고…

마음이 부패하고 진리가 결핍되어 이득을 경건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아니라(딤전6:5),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는 것만으로도 만족하는 사람들은(딤전6:6; 히13:5) 모든 양식을 감사함으로 받는다. 음식물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이며, 하나님의 모든 피조물이 선하기에 하나님께 경배를 드리므로 거룩하게 된다(딤전4:3-5).

마음은 은혜로 굳게 함이 선한 것인데, 음식물에 지배를 받는 자들은 유익을 얻지도 못하고 이상한 교리에 끌려 다니게 된다(히13:9). 황제가 봄의 아침에 태양에게 제사하고 가을의 저녁에는 달에게 제사는 관습에서 온 추석이나, 한 해 동안 벼농사를 지어 가장 먼저 잘 여문 벼를 쌀 한 되가량이 나올 만큼 베어내서 방문 앞에 달아 놓고 조상에게 제사지내는 풍속인 올개심니처럼 복음을 알기 전 이방인으로 있을 때에, 말 못하는 우상들이 끄는 대로 끌려갔었고(고전12:2), 조상에게서 전통으로 물려받은 헛된 생활방식으로 헛된 일들을 행했지만(벧전1:18), 이제는 성령의 성결케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에 이른 자들이 되어(벧전1:2,19) 우상들로부터 하나님께로 돌아와,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게 되었다(살전1:9).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선을 베푸사 하늘에서 비를 내리시며, 결실의 계절을 주사 우리 마음을 음식과 기쁨으로 채우셨다(행14:17; 17:25). 따라서 식사 기도가 지겨운 일이 되어서는 안 되고 헛되이 경배하는 형식적이지도 말아야 한다(딸1:6-14).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고 너를 버리지 아니하리라." 하셨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은 나를 돕는 분이시니, 사람이 내게 행할 것을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라."(히13:5-6) "내가 궁핍하므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 이는 내가 어떠한 처지에서든지 자족하기를 배웠음이라.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또한 풍부함에도 처할 줄도 알아 어디서든지 배부름과 배고픔, 풍부함과 궁핍함에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나를 강하게 하시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빌4:11-13)고 담대하게 말할 수 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지, 자기 배를 섬기는 자가 아니다(롬16:18). 우리는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의 피로 백성을 거룩케 하시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당하신 주님을 따라 그 희생단에서 나온 것을 먹는 자들이지, 썩어질 양식을 먹고자 배를 섬기는 자들이 아니다(히13:10; 빌4:18-19; 요4:34; 6:27). 그러므로 한 그릇 음식물을 위하여 장자권을 판 에서와 같이 불경스러운 자가 없게 해야 한다(히12:16). 또한, 먹을 것이 있는 자는 없는 자에게 나눠주는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해야 한다(눅3:11; 히6:10).

하나님을 알기에 하나님께 합당한 영광을 돌려 드리며 감사하는 것이 마땅하다(롬1:21; 딤전3-4). 그리스도의 신비를 아는 자들의 생활은 하늘에 있지 않은가?(빌3:20)

신앙의 자유를 찾아 머나먼 바다를 건너 신대륙으로 건너온 이들이 흑독한 추위와 식량난으로 거의 반이 죽었지만 인디언들에게 농사를 배워 곡식을 수확함으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인디언들과도 음식을 나누어 먹은 미국의 추수감사절 기원이나, 조국 교회가 미국선교사의 최초 입국일을 추수감사절로 선언한 것은 얼마나 아름다우며 그리스도의 복음을 시인하는 자들의 참 모습이라고 할 수 있다(고후9:8-15; 마6:33; 고전9:11). 작금의 우리의 모습은 변질하고 부패하지 않았나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이제, 은혜의 선물을 거두자(헌금)! 그러나 그것을 추수감사절이 있는 11월 이 한 달만이라도 복음을 전하는 이들을 찾아가 그들을 유쾌하게 해 보자(딤후1:16-18). 이방인들에게서 아무것도 받지 않는 복음을 전하는 이들에게 필요한 것을 보내는 일을 해 보자(빌4:10; 요삼6). 이런 일들은 달콤한 향기요, 받으실만한 희생물이며, 하나님을 심히 기쁘시게 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빌4:18). 가난하며 부족한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섬기는 일을 해 보자. 없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지 않으면서(고전11:22), 함께 하는 교회뿐만 아니라 타 지역에 있는 교회의 가난한 성도들을 위해 너그러운 선물을 기부해 보자(롬16:26; 고전16:3). 주님은 우리를 돕는 자시니 심지어 가난한 교회들일지라도 이 성도들을 섬기는 모금에 동참해 보자(고후8:2-3).

교회가 가난한 자들을 기억하여(갈2:10) 예수님께서 무리를 풀밭 위에 앉히시고 하늘을 우러러보며 축복하시고 빵과 물고기를 주시듯 운동장을 빌려 식탁 시중을 해 보는 것은 어떻겠는가?

교회들이 다 한곳에 모여 찬양의 희생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어떤가? 유명한 가수들을 초청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태어나신 때, 주님의 천사가 들에 거하며 양떼를 지키는 목자들에게 임하여 큰 기쁨의 소식을 전할 때 홀연히 수많은 하늘의 군대가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였듯 합창으로 입술의 열매를 드리면 어떻겠는가?(히13:15)

이제는 우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얻었으니, 그 끝은 영존하는 생명이다(롬6:22). 열매 없는 어두움의 일들에 참여하지 말자(엡5:11). 항상 기뻐하며(빌4:4), 모든 일에 감사하자(살전5:18)! 감사를 드리는 자들이 어찌 배교하겠는가?(살후2:3; 히6:6)

[편집위원 이 영 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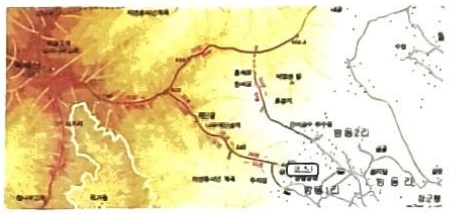
우리 곁에 있는 山
북배산



산으로 둘러싸인 춘천에서 서쪽 편에 길게 자리한 산들이 있다. 마치 산과 산이 일렬로 능선 모습을 하고 있는데, 그 가운데 있는 산이 바로 북배산이다.

이 능선은 경기 제1봉 화악산(1,468m)에서 뻗어 내려 응봉을 거쳐 촉(촛)대봉(집다리골 휴양림의 배경이 된 산에서 솟구친 후 촛대고개에서 숨을 죽인다. 이후 다시 일어나 몽덕산(蒙德山,635m)~가덕산(加德山,858m)~북배산(北培山,867m)~계관산(鷄冠山,736m) 능선을 잇고 마지막으로 삼악산까지 이른다. 여기 몽덕산으로 삼악산까지 능선이 가평군과 춘천시를 가르는 경계의 역할을 해 왔다. 그래서 능선에 올라서면 가평 북면과 춘천 서면과 시내 모습을 조망할 수 있다. 그 능선의 가운데 자리한 북배산은 이 능선 가운데 가장 높기에 이 능선의 북쪽(화악산과 응봉, 촉대봉, 몽덕산, 가덕산과 남쪽(계관산, 삼악산)을 함께 바라볼 수 있는 곳이다. 물론 가평 북면과 춘천 시내를 볼 수 있다. 그런데 이 산을 소개한 모든 정보에는 가평으로 올라가는 코스만 기록되어 있다. 그래서 춘천시민들도 가평까지 들어서 올라가는 경우도 있다.

등산로



춘천에서 오를 수 있는 코스는 서면 방동리에 있는 장절공묘역 주차장에서 시작된다. 북배산에서 춘천 서면 쪽으로 긴 능선이 뻗어 내렸는데, 이 능선을 타고 오르면 된다. 중간에 퇴골에서 오르는 코스와 만나게 된다. 왕복 10.2km, 4:40분이 소요된다.

북배산의 매력

1. 능선종주

몽덕산에서 시작된 능선은 가덕산과 북배산을 거쳐 계관산까지 이어진다. 이 능선은 종종 산악인들에게 종주코스로 소개되곤 한다. 삼악산까지 연계해서 21.8km(10시간) 소요되는 코스가 만들어졌다. 때로는 춘천댐의 삿갓봉에서 시작해서 가덕, 북배, 계관, 삼악으로 이어지는 23.3km(10:40분의 종주코스도 소개된다.



<북배산에서 바라본 가덕, 몽덕산>

<북배산에서 바라본 계관, 삼악산>

2. 방화선

이 능선에는 산불을 대비해서 주능선에 방화선이 설치되어 있다. 방화선은 산불이 났을 때 불이 번지는 것을 막기 위하여 불에 탈 만한 것을 없애고 10m정도의 폭으로 비워둔 지대(地帶)인데, 이곳은 이 방화선을 따라 가을에 억새가 피어있다. 그래서 색다른 운치를 더한다. 봄이 되기 전에 이 억새를 제거하는데, 겨울에 눈 덮인 능선의 모습과 초봄 키 작은 풀로 덮여 있는 능선은 마치 중국의 만리장성을 연상케 한다는 말을 듣는다. 지금 억새로 덮여 있는 능선은 환상적인 그림을 연출한다. 이 능선을 경험한 사람들은 종주는 겨울이나 초봄이 제격일 것이라고 말한다. 억새로 인한 종주에 어려움이 많다는 말이다. 그 외에는 종주보다는 산 정상에 오르는 코스가 좋을 듯하다.





3. 북배산 정상

정상부분은 억새가 어우러진 평편한 모습을 하고 있다. 그래서 처음에는 어느 곳도 조망하기 어려워서 실망할 수 있다. 그러나 정상 한 곳이 아닌, 곳곳에 조망 포인트가 있다. 북쪽 능선을 볼 수 있는 곳, 남쪽 능선을 바라볼 수 있는 곳, 가평 북면 쪽과 춘천 시내를 볼 수 있는 조망터가 각각 존재한다. 그래서 정상을 이리저리 다니면 그때마다 새로운 풍광을 보여주는 곳이다. 정상에 올랐다면 바로 하산하지 말고 능선을 따라 이동하면서 즐기기를 권한다.



<정상에서 바라본 춘천시내>

주변안내

북배산 등산로 초입에 장절공묘와 방동리 고분이 위치한다.

1. 장절공묘



고려의 개국공신 장절공(壯節公) 신승겸 장군의 묘소이다. 평산 신씨의 시조로서, 918년 배현경 · 홍유 · 복지겸 등과 함께 궁예를 몰아내고 왕건을 추대하여 고려 건국에 이바지하였다. 태조 10년(927) 대구 공산에서 후백제 견훤의 군대와 싸우다가 태조가 적군에게 포위되어 위급해지자 태조의 옷을 입고 변장하여 맞서다가 전사하였다. 적군이 신승겸을 태조로 오인하고 그의 목을 베어가자 태조는 머리 없는 시신에 금으로 머리를 만들어 장례식을 치렀다고 한다. 도굴을 막기 위해 묘는 하나인데 봉분을 3개 만들었다고 전해지고 있으며, 현재 이 묘에는 3개의 봉분이 나란히 있다. 묘역에는 신도비(神道碑:왕이나 고관 등의 평생업적을 기리기 위해 무덤 근처 길가에 세운 비) 및 묘비가 서 있다.

2. 방동리 고분



삼국시대에 우리 고장이 고구려 영토에 편입되었던 것을 증명해 주는 이 고분은 1981년에 학계에 알려진 고구려시대의 옛 무덤이다. 이미 도굴되어있던 것을 발견한 고분으로 삼국시대 우리 고장이 고구려 영토에 편입되었던 것을 증명할 수 있는 2기의 돌방(石室)무덤이다. 1993년 정비발굴을 실시해 만든 수법과 내부구조를 파악하였는데 유물은 발견되지 않았다. 2기의 무덤 모두 동쪽에 봉로인 널길을 낸 무덤방이 하나인 "동편연도 단실분"(東便羨道 單室墳)인데 서측의 고분은 석실 위에 바로 봉토를 입혔으나, 동측의 고분은 석실주위를 정사각형에 가까운 모양으로 돌을 쌓아 돌린 후 봉토를 씌운 점이 특색이다. 2기의 축조방식은 고구려가 중국에서 도입한 것으로 신라와 백제에서는 볼 수 없는 양식이다. 구조와 만든 수법으로 보아 고구려가 장수왕(長壽王413~491) 때부터 이 지역을 차지하다가 6세기 중엽 신라의 진흥왕(眞興王)에게 내어주는데 이 무덤은 그사이 시기에 만들어진 것으로 보인다.

현재 2기의 고분 중 서쪽고분은 발굴조사 후 다시 흙으로 덮었으며 동쪽 고분은 내부구조를 볼 수 있도록 노출시킨 후 보호각을 세웠다.

|편집위원 고 재 만|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로다"(시121:1~8)

아름다운 사람들이,
세상의 빛으로 오신 주님을 찬양합시다.
구원의 샘에 세워주신
주님을 경배하여
감격의 눈 물이 흘러
영광 중에 나오는 능력과 치유
기쁨으로 충만 합니다.
영과 혼과 육이 어우러진
아름다운 성령의 충만
우리 모두 함께 하나님께 영광을...
아름다운 사람들이!

선교 찬양
율동 연구원

원장 조 순 례

† 대 상: 초교파, 찬양율동을 사모하는 모든 분들
† 장 소: 베드로선교센터 5층 추수홀 및 강의실
† 강 의: 매주 월, 화요일
† 문 의: 033)256-7848
H.P 010-7313-7848, 019-532-7720

세경볼링센타

매주 토요일 오후2시~3시30분 무료강습
단체 환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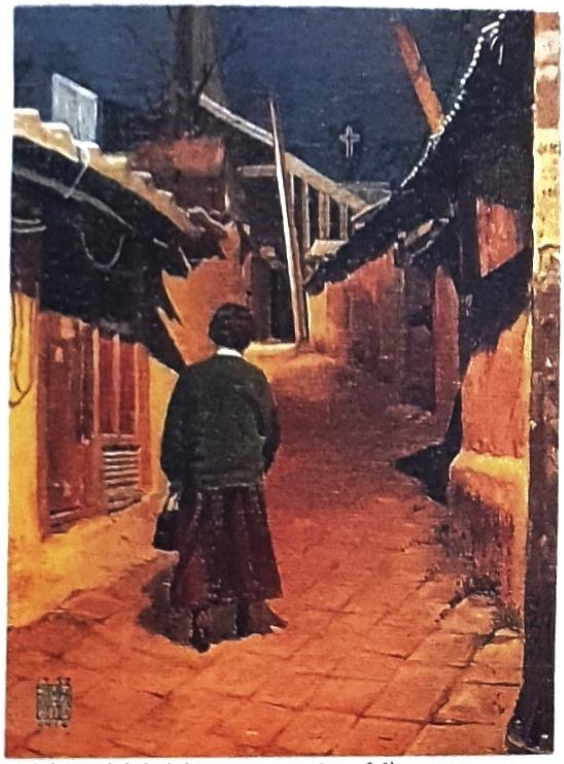


위치 춘천시 석사동 694 세경상가(지하)

대표 이 용 운 집사
(춘천온누리교회)
춘천시볼링협회 전무이사

☎ 261-6184~5 / 011-9969-6702 cafe.daum.net/ccbowling

예수 안에서 본 예술



새벽기도 / 정하진 화가作 /33.4 x 45.5cm 유화

여인은 새벽에 도우시는 분과의 만남을 위해 그 시간을 놓칠 수 없었습니다. 하루의 첫 시간을, 그 어떤 일로도 방해가 없는 시간을 이처럼 구별합니다. 그리고 그 시간을 사모하는 많은 이들과 함께합니다. 화가는 그림속의 여인을 새벽길의 안내자로 앞세워 놓고 우리의 동참을 기다립니다. 이 작품은 우리를 깨워서 새벽의 삶으로 불러내는 한 장의 초청장일 것입니다. [편집위원 이관형]

당신으로 인하여

'내가 웃을 수 있는 것은
오직 당신이 함께 하심기 때문입니다.

절망 등에 내려설 수 있는 당신이
항시 함께 하심으로 인하여
절망의 늪으로가 아닌
절망 그 위로 날아오를 수 있었습니다.

내 안에 당신께서 함께 하시지 않으셨더라면
지금의 나는 이미 없고
흐트러지고 뭉개진 덩굴을 한
가여운 영혼 하나 거리를 헤매고 있을 것입니다.

절망의 늪에서 갈 곳 몰라 울던 날
내 눈물을 닦아주시고 손잡아 일으키시어
내 속에서 희망의 불씨를 다시 지피우신 분
바로 당신이십니다.

천국의 세월을 걸어오는 동안
어두운 그늘이 내 인생을 덮을 때
희망의 빛으로 이끄신 당신으로 인하여
나는 환하고 빛나는 얼굴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내가 절망 등에도 낙심하지 않고
늘픔 등에도 희망을 잃지 않으며
환한 얼굴로 피어날 수 있게 된 것은
오직 저를 사랑하시는 당신이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시 · 초록바람 한인순(춘천한길교회)

| 건강상식

건강하게 오래사는 법



정 형 만 원장 (참사랑내과)

세계보건기구(WHO)의 건강(Health)의 정의는 육체적, 정신적, 사회적으로 건강한 상태에 영적(spiritual)인 건강함을 더한 상태로, 단지 신체적으로만 건강한 상태는 진정한 의미의 건강이라고 말할 수 없다. 의학적으로도 건강하게 살려면 좋은 음식(영양)과 적당한 운동과 휴식(스트레스 해소) 만으로는 불충분하다고 한다.

보건통계학적으로 세계장수촌에서 본 건강장수자들의 특징은 대부분이 지역사회와 가정에서 교제 범위가 넓고 바르고 활발했으며 타인으로부터 존경을 받으면서 하루하루를 적극적으로 살았고 낙천적이고 긍정적이었다. 대부분 농업이나 노동일에 종사하고 곡류 야채 과일 중심의 검소한 식생활을 하였다. 육식위주로 식생활을 하는 민족이나 유목민 중에서는 100세 이상의 장수자가 없었다. 장수자의 가족사항은 대부분 대가족을 형성하여 여러 세대(3,4대)가 함께 살았고 화목한 대가족, 부부관계가 원만할수록 장수하였고 신앙생활이 장수의 플러스 요인이었다. 긍정적으로 명랑하게 매일 매일을 사는 사람은 자율신경과 내분비기능이 좋아져 암세포를 죽이는 다양한 사이토카인(cytokein)이 생성되며 세포성면역이나 암면역을 담당하는 NK cell(natural killer cell)이 활발해져서 건강이 좋아지고 수명이 길어질 수 있으며 암을 극복할 수도 있다. 최근 암 환자에게 웃음치료와 면역치료를 시도하여 효과가 좋았다는 보고도 있다. 성경에서도 장수의 근원을 하나님께 두고 있으며(신 22:7, 시 61:6, 91:16,), 오래 사는 것을 복으로 간주했다(신 22:7, 잠 3:16). 또한 장수의 비결로 하나님 경외(전 8:12 잠 10:27), 말씀순종(신4:20, 30:20) 부모공경(출 20:12, 엡 6:1-3), 욕심을 버림(잠 28:16) 등을 들고 있다.

2005년 질병보건통계를 보면 한국인의 사망원인은 1위 암(악성신생물), 2위 뇌혈관질환, 3위 심장질환, 4위 당뇨병, 5위 만성하기도질환 등이며 이들 5대 사망원인으로 인한 사망자 수가 전체 사망의 57% 이상을 차지하였다. 그래서 암에 대하여 알아보려고 한다.

의학적으로 누구나 신체 내에 암세포가 생길 수 있다. 그렇다고 해서 모두 다 암환자가 되는 것은 아니고 대부분의 경우 우리 몸 스스로 암세포를 없앨 수 있다. 암 발생의 원인으로는 발암물질 활성산소, 스트레스, 호르몬이상, 세균감염(바이러스감염이 간암 위암 자궁경부암 등의 원인), 방사선과 자외선 등이다. 한편 암 발생 억제방법으로는 충분한 양의 신선한 야채와 과일섭취와 적당한 운동이나 노동, 적당한 휴식, 적정수준의 스트레스 유지 등이다. 과다한 스트레스는 스트레스 호르몬의 분비가 증가하여 면역력이 저하되어 비만, 당뇨병, 고혈압, 정신질환, 암 등이 생길 수도 있다.

우리나라의 주요 8대 암과 암예방 수칙에 대해 알아보자

1. **식도암** : 금연, 뜨거운 음식 뜨거운 음료 먹지 않기, 야채 과일 많이 먹기, 술 절제
2. **위 암** : 싱겁게 먹기, 야채 과일 많이 먹기, 과식하지 않기, 금연, 음식물을 확실히 냉장하기
3. **대장암** : 식물성유질 섭취, 육류 대신 생선이나 콩 섭취, 적당한 운동, 폴립(용종) 제거
4. **폐 암** : 금연, 야채와 과일(당근 토마토) 매일 먹기
5. **간 암** : 금연, 금주, B형간염 예방접종
6. **유방암** : 원인은 미혼, 고령출산, 빠른 초경, 늦은 폐경, 육식, 술, 비만 등이고, 예방법은 지기검사법, 야채섭취, 비만관리, 술 안마시기, 소 · 돼지고기 줄이기, 오유수유, 적령기에 결혼하기 등이다.
7. **자궁암** : 원인은 인간유두종바이러스(Human papilloma Virus 불결전한 성관계 외도 등이 원인), 비만, 과도한 육식섭취, 여성호르몬(피임약), 임신출산의 경험이 없거나 폐경시기가 늦어질 경우 등이며 예방은 외도를 금하고 육류 적게 먹기, 야채 과일 많이 먹기, 예방접종 등이다. 최근에 자궁경부암 예방백신이 생산되어서 우리나라에서도 맞을 수가 있다.
8. **전립선암**의 예방은 육류 섭취 줄이기 야채와 콩 섭취 적당한 활동 등이다.

D-15, 수능 가족이 함께 준비해세요.





11월 15일, 대대적으로 준비하는 수험생이나 학부모 모두 떨리는 마음으로 있을 것이다. 수년 동안 준비한 것을 하루에 평가한다는 것이 모순같이 보이지만 아무튼 성공적으로 치루기 위해서는 몇 가지 전략을 함께 세워서 노력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다국이 수험생의 가장 좋은 도우미는 가족이다. 학업뿐만 아니라 휴식과 식사 등에 가족의 힘이 전대적으로 필요하다. 보름 앞으로 다가온 수능을 가족과 함께 곱게 준비해서 기대했던 좋은 결과를 얻기 바란다.

식사전략

수험생들에게 챙겨주어야 할 중요한 것 중의 하나는 건강이다. 수험생들이 주로 시험 시간이 다가오면 불안과 스트레스로 인해 두통, 불면증, 식욕부진, 소화불량을 호소하기도 한다. 전문가들은 "가급적 기름기가 적은 음식을 먹고 담백한 생선, 살코기 등과 같은 고단백 음식과 과일, 야채 등 비타민이 많이 함유된 음식을 섭취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한다. 적당한 음식은 삼계탕, 인삼, 황기, 대추 등과 함께 삶아 먹으면 체력을 보충하는데 그만이라고 한다. 더 나아가서 두뇌에 영양원이 되는 땅콩, 호두, 참깨와 같이 불포화 지방산, 무기질이 많이 함유된 식품이 좋다고 권한다. 이와 함께 DHA가 다량 함유된 등푸른 생선을 섭취하면 뇌기능을 향상시키는 데 도움을 얻을 수 있다.

기도전략

크리스천이라면 수능 준비에서 기도를 빼놓을 수 없다. 시험을 치루는 당사자 뿐 아니라 온 가족과 교인들이 한마음이 되어 수험생의 건강과 좋은 결과를 얻기 위해 기도를 모아야 할 것이다. 그러나 기도할 때 수험생이 부담을 갖지 않는 방법을 지혜롭게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 새벽기도회, 철야기도회 등 특별새벽기도회 때 수험생을 위한 기도시간을 구성하는 것도 좋다. 또 수험생들이 언제든 교회를 찾아와 마음 놓고 기도할 수 있는 별도의 공간을 마련해 놓는 것도 효과적인 방법이 될 수 있다.

수면전략

조급한 마음으로 시간에 쫓기다보면 수면시간을 줄이는 학생들이 많다. 그러나 충분히 잠을 자지 못하면 생체 리듬이 혼선을 빚어 이로 인해 인지기능 장애, 정서장애까지 이어질 수 있으며, 수험생에게 가장 중요한 집중력이 저하될 수 있다. 그러므로 수험생들이 하루 5시간 이상 깊은 숙면을 취하는 것이 좋다. 이를 위해 잠자는 시간을 정해놓고 그 일과대로 생활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지금부터 가장 중요한 것은 규칙적인 생활 습관을 갖는 것이다. 가급적 밤늦도록 공부하는 이른바 '올빼미족'에서 벗어나, 낮 시간대 공부에 집중할 수 있도록 생체 리듬을 바꿔야 한다. 수능시험 시간대에 두뇌 효율을 높이려면 자정 무렵에는 잠자리에 들고, 아침 6시 이전에 일어나는 습관이 필요하다. 또 마무리 정리할 분량이 많다고 잠을 줄이면 오히려 역효과가 빌생한 수 있다. 잠은 휴식인 동시에 재충전이며, 낮 시간대의 학습 효율을 결정하는 요소라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만약 불면증이 있다면 콜라, 커피, 홍차, 녹차, 초코렛 등 카페인이 함유된 음식은 피하는 것이 좋다. 한편 숙면을 도와주는 극세사 이불, 해열 베개, 음악이 흐르는 베개 등 기능성 수면 관련 용품들이 출시되 인기를 끌고 있다.

학습전략

이제 보름도 채 남지 않은 수능 막바지 시간이다. 수능시험 준비에 있어 15일은 결코 짧은 시간이 아니다. 하루 단위의 학습 계획을 세운 뒤, 차근차근 정리한다면 기대 이상의 성과를 거둘 수 있다.

올 수능부터 마무리 학습에는 등급제 수능 특성에 따른 수험생 자신만의 전략이 반드시 필요하다. 예를 들어 지난 9월 모의 수능에서 외국어는 1문항만 더 맞추면 2등급에 진입할 수 있지만, 수리는 2~3문항을 더 맞춰야 등급 상승이 기대된다면, 등급 향상의 확률이 높은 영역에 비중을 더 두는 것이 효율적인 전략일 것이다. 지난 2년간 수능시험을 분석한 결과, 각 등급간 점수 격차가 적은 영역은 언어>외국어>수리 순으로 나타났다. 이는 언어와 외국어의 경우 등급 향상의 기회일 수 있지만, 자칫 실수를 하면 등급 하락이라는 위기를 맞을 수 있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또 마무리 학습으로 문제풀이를 하면서 기본개념 부분은 대충 훑어보고, 난이도 높은 문항이나 단원을 공부하려고 할 것이다. 수능은 기본개념을 바탕으로 한 사고력을 평가하는 시험이다. 따라서 기본개념을 꼼꼼하게 점검하고, 관련 문제를 신중하게 풀어보는 것이 고득점의 발판이 된다. 단원별로 정리된 기출문제를 풀다보면 출제 유형을 파악하고, 출제자 의도까지 알 수 있어 실전에도 많은 도움이 된다. 평가원에선 이미 출제된 문제라도 본질의 핵심을 재가공해 출제하겠다는 방침을 거듭 강조했다.

시험이 다가올수록 긴장감이 높아만 간다. 더욱이 정리할 학습 분량까지 많다면 허둥대다 시간을 낭비할 수 있다. 자투리 시간에는 영어단어나 고사성어 등을 외우는 등 하루 단위로 학습 계획을 세울 필요가 있다. 긴장감을 갖고 계획대로 공부한다면 학습 효율도 높아질 수 있다.

[편집부]

예 향

영적 생명력

이제는 누구에게나 '필수품'이 되어 버린 휴대폰. 불편한 것은 배터리 사용가능 시간이 아직도 너무 짧아서 수시로 배터리 상태를 점검해 보지 않고 무심코 들고 다니다간 낭패를 겪게 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려분, 혹시 하나님과의 대화에 문제가 있으십니까? 영적 배터리는 다 방전되어 아무 힘도 공급되지 않고 있는데, 휴대폰만 멋진 것을 들고 다니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목사, 장로, 집사, 교사라고 겉모습은 멀쩡한데 본질중의 본질인 '영적 생명력'이 사라져 버렸다면, 과연 그 직분의 껍질만 가지고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설 수가 있겠습니까?

[편집부]

성시신문 새 이름을 공모합니다.

- 춘천성시신문의 새 이름을 공모합니다.
- 성시신문이 새로운 이름으로 태어나고자 합니다.
- 여러분의 참신한 아이디어를 기대하겠습니다.
- 11월까지 춘천성시본부로 연락바랍니다.
- 당첨되신 분께는 소정의 선물을 드립니다.
- 문의: T. 033)256~1260~1
  F. 033)257-1260

성 시 만 평

이 관 형
jysince93@hanmail.net



성경 속 진리의 말씀으로 거듭나 삶!

평생교육 교육과정 안내

◆ 기타과정

강좌명	교육기간 및 시간	수 강
천연화장품, 비누만들기 강좌	매주 화요일 오후 3시	일반과정
성전(중·소 교회) 꽃꽂이	매주 토요일 오후 3시	
동양 꽃꽂이	매주 토요일 오후4시30분	

※ 4기 신입생 모집 : 2008년 1월 개강
※ 노인요양 치료사(노인장기요양 보험 시행 시 4만 8천명의 인력 필요)

◆ 자격증 과정

강좌명	교육기간 및 시간	수 강
노인요양보호사2급	16주(월, 오후6~9시)	자격증반
심리상담사2급	16주(목, 오후 6~9시)	
장례지도사 2급	16주(금, 오후 6~9시)	
미술치료사 기본과정	12주(월, 오후 6시30분)	

※ 한국미술치료학회 임상수련시간 인정과정, 현장에서 적용할 수 있는 미술치료기법
※ 교회학교 아동부 교사에게 유익한 프로그램
※ 소정의 과정을 필한 후 미술치료사 자격증 취득가능(민간자격증)

■ 교육장소 : 인재한국 평생교육원 세미나실(춘천와이신협, 춘천기독교방송국 3층)
■ 문 의 처 : 본원 사무실 ☎033) 241-8801, 8802, 9939

인재한국 평생교육원
원장 김성호 / 부원장 권영식

복 지

키워주신 것처럼 섬기겠습니다!



고령화사회로 접어들면서 노인인구의 증가는 사회적으로 많은 문제와 함께 사회복지 책임을 더욱 증가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다. 특히 타인의 의존성이 가장 높은 치매 · 중풍 어르신들은 사랑의 손길을 더욱 필요로 하기 때문에 고령화 사회의 당면 과제로 모두 함께 헤쳐 나아가야 할 과제이다.

사랑과 섬김, 기쁨이 있는 안식처

춘천시 서면에 위치한 「광림노인전문요양원(무료노인전문요양시설)」, 「광림사랑의집치매센터(유료노인전문요양시설)」는 어르신 170분들에게 사회복지사, 간호사, 물리치료사, 영양사, 생활지도원 등 전문성을 갖춘 직원 87명이 각자의 역할에 따라 사랑과 헌신 그리고 섬김을 통하여 치매어르신과 그 부양가족의 문제를 해결하고, 어르신들께서 평안과 삶의 기쁨을 찾을 수 있도록 인도하고자 하는 안식처이다.





대부분 치매 · 중풍 질환을 앓고 있는 어르신들을 위해서 질병의 종류와 정도에 따라 케어프로그램을 강화하고, 음악, 인지, 레크, 미술, 웃음, 운동, 재활 및 물리치료 등의 프로그램과 지역자원과의 긴밀한 연계 프로그램을 통하여 치매노인에 대한 인지적, 정신적 영역뿐만 아니라 영적, 육체적 영역에 대하여 전반적인 서비스를 제공하여 어르신들의 기능회복과 생활의 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다시 말해서 어르신들께 전반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설립되었다. 또한 시설에서의 생활에 무료함을 달래고 보다 즐거운 일상을 만들어 드리기 위해 어버이날, 노인의날, 성탄행사, 명절행사, 나들이 등 다양한 연중행사를 실시하며, 직원 및 가족들이 어르신과 함께하며 제2의 가족이 되어 사랑과 마음을 나누고 있다.

2008년 7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실시

2008년 7월에 실시예정인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들에게 제공하는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장기요양급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하고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실시되면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입소가 가능하며, 다양한 방식의 전문적인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http://www.longtermcare.or.kr)를 통해서 이용절차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광림가족들과 함께 사랑을

광림가족들은 매일 아침 우리다짐(믿음으로 하나 되고! 섬김으로 실천하며! 나눔으로 희현하자!)을 외치며 오늘 하루를 어떻게 하면 좀 더 어르신들을 행복하고 평안하게 모실 수 있을까 고민하며 하루를 시작한다.

우리 광림가족들은 항상 어르신 중심에서 생각하며, 키워주신 것처럼 섬기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하지만 춘천시내에서 다소 멀리 떨어져 있다 보니 봉사자와 후원자의 손길이 많이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어르신들과 함께하며 프로그램을 진행할 전문성을 갖춘 봉사자들의 손길이 절실히 필요하다. 전문가가 아니어도 좋다. 사랑의 마음과 정성, 그리고 노력만 있으면 된다. 사랑의 손길이 절실한 이곳, 작은 사랑의 헌신만으로도 아름다운 천국을 만들 수 있다.

"당신의 사랑을 망설이지 말고 나누어 주세요!"

■ 후원(아름다운 나눔)

십계천이 모여 바다를 이루듯 우리들의 작은 정성이 모이면 어르신들에게 큰 기쁨이 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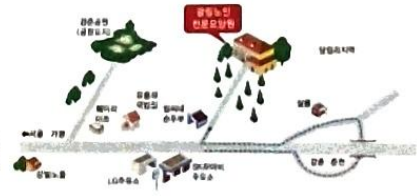
※후원종류
- 결연: 어르신과 결연하여 매월 일정금액을 후원
- 기금: 노인복지사업 활성화에 필요한 사업비 후원
- 물품: 노인복지사업 및 어르신들에게 필요한 물품 후원(TV, 세탁기, 청소기 생필품 등)

■ 자원봉사(따뜻한 섬김)

자신의 가진 바를 나누는 아름다운 모습을 가족, 친구들과 함께 이곳에서 펼쳐보길 바랍니다.

※모집대상: 노인복지에 관심이 있는 학생, 주부, 일반인, 각 분야의 전문인 및 단체

※입소 · 후원 · 자원봉사 문의 :
033)263-3994~7, [www.klsliver.or.kr]



■ 광림 노인 전문요양원 오시는 길

이달의 말씀

창세기 12장 1~2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가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세계를 품는 그리스도인

·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대선을 통해 하나님이 기뻐하시며 백성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지도자가 나라에 설 수 있도록.

· 춘천과 강원도를 위하여
낙후된 교육과 경제의 참된 변화가 이뤄질 수 있도록.

· 춘천기독교연합회와 성시화운동을 위하여
새로 선출된 임원진들안에 성령의 권능이 임하게 하시고 더욱 주님이 기뻐하실 성시화의 역사를 이뤄나갈 수 있도록.

· 춘천모든 교회의 부흥을 위해
모든 교회 목회자들과 평신도지도자들에게 성령의 능력이 임하여 주옵시고, 모든 교회가 함께 부흥되는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특히 "한교회" 운동으로 춘천을 복음의 가나안이 되게 하도록.

춘천성시신문

편집위원장 : 최영조
편집 위원 : 조영춘 최상도 정재호 이영규 권기찬 고재만 김춘배 이관형 김미경

원고투고 및 광고 문의
200-080 춘천성시신문사
춘천시 운교동 174-3 와이신협3층
E-mail : hc1260@hanmail.net
대표전화 : 033)256-1260~1
FAX : 033)257-1260
010-7347-9004
010-3118-935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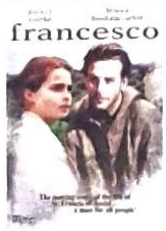
하나투어 HANATOUR
하나투어 전문판매 대리점
주말에 여행 알아보기 힘드셨죠?
여행 매니저와 상담하세요. 평일, 주말 언제나 고객님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고객이 만족하는 서비스로 정성껏 모시겠습니다.
TEL:244-1212 (하나투어)
하나투어 전문판매 대리점 NTOURS 이마트내 1층에 입점해 있습니다.
※고객님들의 성원에 감사드립니다.

색동저고리
한복연구소
한복사랑21년 개업11주년 기념세일
여자한복
남자한복 20~30%
두루마기
(신부님께는 예쁜 아암을 선물로 드립니다.)
주님을 모시듯 정성껏 모시겠습니다.
☎243-9019, 011-1788-8406 김기순 집사 춘일교회 [약사동 마을금고 옆]

기독문화산책 — 영화이야기<5>

"위대한 영성 프란체스코"







가을이 깊어가는 만큼 우리들의 영성도 깊어져야 할 것이다. 역사상 지고지순한 영성의 본을 보인 아시시의 성 프란체스코의 이야기는 너무도 유명하다. 새들과 대화하는 등 자연과 만물에 예정을 갖고 가난한 자와 나병환자들의 벗으로서 그리스도의 복음대로 따라 살리고 애쓴 그의 이야기는 만년에 그의 몸에 새겨진 오상(五傷)의 기적으로 절정을 이룬다.

이 위대한 성자의 이야기 역시 영화화되었는데, 1950년 로베르토 로셀리니는 <프란체스코, 신의 어릿광대>에서 자신만의 특유 감각으로 순진한 성자의 모습을 담았다. 친진난만하고 순수한, 곧 일종의 "바보 성자" 혹은 "미치광이 성자"라 할 수도 있는 성 프란체스코와 그를 따르는 제자들에 관한 널리 알려진 이야기를 그의 프레스코화적 스타일로 다룬 작품이다. 이른바 '영화적인 것'에 대한 집착을 뛰어넘는 로셀리니 특유의 간결함과 단순성에 대한 요구가 진정 위력적인 힘을 발산하는 순간을 경험할 수 있는 걸작이지, 오늘날의 씨네필들에 의해 재발견되어야 할 필견(必見)의 영화라고 한 평론가가 언급하였다. 그러나 아쉽게도 매끄러운 번역이 되어 있지 않아 공감이 힘든 부분이 많다.

이어 1966년 카바니 릴리아나(Liliana Caavani 1937~)라는 여성감독이 자신의 극영화 데뷔작으로 <아시시의 성 프란체스코>를 만들었는데 다큐멘터리로 갑고 뒤은 일상생활에 대한 완벽한 관찰력을 트대로 가볼락에 대한 반대를 상징적으로 형상화했다는 평을 받았다. 헐리우드 명배우 미키루크를 기용하여 1989년 다시 만들었다. 필자는 이 영화를 영화관에서 보았는데 세속의 옷을 벗는 상징적 행위인 알몸연기로 당시 논란을 일으켰지만 오상(五傷)의 기적을 온전히 표현한 유일한 작품이 되었다.

또 <로미오와 줄리엣> <나사렛 예수>로 명성을 날린 프랑코 제퍼렐리가 <브라더 선 시스터 문>(Brother Sun Sister Moon)이라는 제목으로 1972년에 이 성자의 생애를 다루었다. 로마 교황을 감동시키며 돌아가는 마지막 부분이 감동적이다. 특히 그의 변화되는 과정을 세심하게 보여주는 가운데 아시시의 풍광이 아래의 노래와 함께 황홀하게 아름다운 배경으로 나온다.

꿈을 이루고 싶거든 천천히 그리고 착실하게/ 작은 시작에 커다란 결심/ 열심히 일하는 께끗함이여/ 자유의 생활을 바라거든/ 서둘지 말고 천천히/ 하루하루 돌 하나하나/ 그대의 성전을 지으라/ 하루하루 그만큼 자라는/ 하늘의 영광을 알게 되리

[편집위원 김춘배]

책 소 개

느긋하게 걸어라 : 산티아고 순례길에서 얻은 인생의 교훈들



조이스 럽 저/윤증석 역 | 북있는사람 | 2007년 04월

「느긋하게 걸어라」는 60의 나이에 산티아고 순례 길에 올랐던 한 수녀의 글이다. 순례자 하면 우리는 중세 시대를 연상한다. 교통이 거의 발달하지 않던 시대에 순례를 떠나면 거의 도보로 다녀와야 했던, 성지인 예루살렘의 순례는 몇 년이 걸릴지, 혹은 무사히 마치고 돌아오기나 할는지 모르는 아주 험한 길이었기에 일생의 소원으로 그칠 때가 많았다. 지금도 성지 순례가 있지만 비행기와 차로 다니는 순례이기에 옛날 성도들의 순례에 대한 느낌을 갖기는 어렵다.

그런데 오늘날 그 옛날의 순례와 같은 체험을 할 수 있는 순례길이 있다는 것이다. 스페인 북부, 800킬로미터를 걷는 순례길인데, 이 순례의 목적지는 스페인의 북서쪽에 대서양을 끼고 있는 산티아고이다. 산티아고는 "성 야고보"를 뜻하는데, 그곳에 야고보 성당이 순례의 최종 목적지이다. 출발은 스페인과 프랑스의 경계를 이루고 있는 피레네 산맥인데, 프랑스 쪽 기슭인 생장피드로르나 스페인 쪽 론세스바에스라는 작은 마을들이다. 이곳에서부터 도보로 하는 순례는 거의 6주의 시간을 필요로 한다. 자신의 배낭을 메고 매일 걸어서 순례를 하는 것이다. 이 순례 여행은 유서가 깊다. 9세기 중에 시작되었다는 일부 기록이 있고 10세기 초에 이 순례가 대중화 되었다고 한다. 그래서 이 순례길을 가리켜 '카미노'라 부른다. 중세기에 이 카미노를 걸은 순례자들의 수가 최고 1백만에 달한다는 말이 있다. 지금도 여름철 성수기가 되면 이 길을 찾는 사람들이 매일 무려 1천명에 달한다고 한다. 이들 순례자들은 산티아고까지 보행을 마치면 성 야고보 성당 근처의 순례자 사무실에서 순례 필(畢)을 증명해주는 공식 서명된 인증서를 받는다. 이 카미노는 산악지대와 고원지대뿐만 아니라 스페인의 유서 깊은 도시와 마을을 거쳐서 거의 6주 동안 걸어야 한다. 그래서 가장 단출한 차림으로 곳곳에 위치한 열악한 대피소에서 숙식을 해결하면서 순례를 해야 한다. 그런데 왜 이런 순례가 지금도 행해지고 있고, 왜 사랑받고 있는가? 오랜 전통에 따른 가톨릭 신자들뿐만 아니라 개신교 신자와 신앙이 없는 사람도 이 순례에 동참한다. 산티아고가 목표가 아니라 그 길 자체가 목적이 되기 때문이다. 그런 순례가 삶이라는 깨달음이 오기 때문이라고 한다. 그 카미노를 통해서 인생을 배우고 영성을 키우게 되었다고 저자 조이스 럽은 증언한다. 한 번쯤은 이런 순례를 했으면 한다. 아마 자신의 신앙을 깊이 통찰할 수 있지 않을까? 그것이 어렵다면 이 책으로라도.

[편집위원 고재만]

<후원자를 찾습니다>

농 협 301037-52-193771 조영문
Y신협 04073-13-016959 조영문
1구좌 5천원, 2구좌 1만원
(성시화를 위한 구독헌금에 동참합시다)

[성시화 10월 후원자 명단]

갈릴리교회	감촌감리교회	
강북성결교회	광영감리교회	
거성침례교회	나눔성결교회	
늘사랑교회	동신장로교회	
순복음춘천교회	순복음하나교회	
사랑성결교회	소양성결교회	
소양제일성결교회	세인장로교회	
순복음열린교회	온누리장로교회	
예광침례교회	예담장로교회	
춘천일신교회	춘천동부교회	
춘천명성감리교회	춘천북부교회	
춘천사랑의교회	춘천제일장로교회	
춘천제일감리교회	한빛장로교회	
춘천와이신협	천일현수막	
국민일보춘천지사	자연유치원	
안투어	디티피아	쏘인테리어
제시뉴욕	김 길 홍	김 진 심
김 현 철	김 영 명	박 동 환
신 성 근	심 인 섭	안 미 애
안 정 숙	엄 필 남	오 흥 수
이 용 규	이 원 기	이 원 영
이 만 호	이 학 규	이 병 연
장 기 영	정 찬 복	조 은 제
최 상 호	최 치 광	최 예 석
한 희 현	황 병 찬	허 순 영
홍 순 복		

춘천기독교연합회 2007 회비 납부 교회

광영장로	감영감리	나눔성결
늘사랑장로	동부장로	동신장로
북부장로	새순성결	새춘천성결
석사감리	소양성결	소양제일성결
순복음제일	순복음춘천	시온성결
신사우동	온누리장로	중앙성결
춘천장로	춘천제일감리	춘천제일장로
평화감리	행복을전하는	김혜경
와이신협	홍요셉	

2007춘천선교대회 기아체험 걷기대회 협찬교회

감촌감리	광영감리	늘사랑장로
동부장로	동신장로	등성장로
동춘천감리	영성감리	사랑의장로
석사감리	성광장로	소양성결
소양제일성결	순복음제일	순복음춘천
예담장로	온누리장로	은혜장로
우두감리	우리장로	중부장로
중앙감리	중앙성결	중앙장로
춘천제일감리	춘천제일장로	칠대감리
희목장로		

"박은 제2의 심장입니다"
Foot Care 발 관 리 샵
⊙ 족 심 도
★ 허리통증
★ 오십견
★ 무릎관절
★ 수족냉증
★ 어깨통증
⊙ 체지방관리
⊙ 피부관리
※족 심 도(족부반사구요법)
중국의학에서 유래된 족심도는 발에 분포되어 있는 혈도를 자극하여 병을 예방하고 이미 발병된 병의 증세를 완화해 줌으로써 치료효과가 크게 나타나는 건강법
★ 일반 발맛사지와는 다릅니다.
족심도는 진단 및 증세완화 효과가 크게 나타납니다.
✚ 박 영 란 권사(충안성결교회)
춘천시 퇴계동 금호 2차A 상가 2층
Tel : 033)262-8575 HP : 017-332-6346

DTP 디티피아
"우리가 드리는 말이 곧 진리의 말이 됩니다"
최 상 철 집사 (제일장로교회)
Tel : 033.263.5152
Fax : 033.242.5121
강원도 춘천시 효자3동 607-2
E-mail: chsch1784@yahoo.co.kr

알 림

알림



레 노 바 레!

김 덕 용 목사
춘천중부교회

아침저녁으로만이 아니라 이젠 낮에도 제법 춥다는 생각이 든다. 빠르게 지나가는 가을이 아쉽다. 이 가을, 추수의 계절에 얼마를 먹으면 살이 얼마나 찌고 또 얼마나 빼지고를 계산하며 흰쌀로 밥을 지어 먹는다. 씹한 볼을 탄수화물 덩어리로만 보며 영양소를 계산하는 시대를 살고 있다. 이때에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쌀 한 톨에 담겨있는 하늘의 햇빛, 땅의 양분, 농부의 수고를 생각해 본다. 그리고 쌀밥 한 그릇을 먹는 그 자체가 모든 농축된 사랑을 먹는 것이라고 말한다면 누군가가 웃을까? 10대 수험생, 불확실한 20대, 놀이동산 청룡열차를 타며 떨어지지 않으려고 정신없이 매달려 흔미한 것 같은 인생을 사는 30~40대, 지쳐서 놀이동산을 나오는 듯한 50~60대! 아니면 그 이후 세대?

어느 회사의 '브라보 유어 라이프(Bravo your life)! 긴 인생 아름답도록' 이라는 광고 카피를 보았다. 이 내용은 나이에 관계없이 누구나 자신을 돌아보고 인생을 가꿔가야 한다는 메가톤 것이다. 이 가을에 쌀 한 톨을 놓고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에 더 풍요로워질 수 있는 인생을 위한 '새로움과 회복' 을 생각해 본다.

얼마 전 레노바레 영성 부흥 컨퍼런스'가 열렸다. 레노바레는 라틴어로 '새롭게 하다' 혹은 '회복하다' 라는 뜻이다. 한국 모든 교단의 목사들과 동남아 지도자들을 포함한 세계 지도자들이 대거 참여한 가운데 목상, 복음, 성결, 카리스마, 사회정의, 성육신의 여섯 가지 영성 전통을 살피는 모임이었다. 믿거나 말거나 불교도 회교도 힌두교도 그리고 뉴에이지 운동가들조차도 마치 영성 운동이 자신들의 전유물이고 유일한 답이 자신들에게 있는 것처럼 행동하며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 이때에 기독교 영성을 정의하고 자신이 무엇이 부족한지 영역별로 점검하고 살펴보며 회개와 순종을 결단하는 것은 그 자체가 참으로 의미 있고 중요한 일이었다. 기독교 영성을 한마디로 '예수 그리스도만이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심을 믿는 것'이라는 리차드 포스터의 정의는 내 마음을 시원케 했다. 나는 그동안 영성이라는 말을 목상, 복음, 성결, 카리스마, 사회정의, 그리고 성육신의 여섯 가지 영역과 얼마나 연결하여 생각하였던가? 예수님 자신이 목상의 주인이시기에, 복음 그 자신이시기에... 씹한 볼을 놓고 온 세상을 다스리시며 새롭게 하실 주님을 바라보는 주님 안에 참된 영성을 생각한다. 그리고 나와 내가 섬기는 교회, 춘천, 그리고 온 세상을 예수님께서 새롭게 하실 것을 바라며 이 가을에 외쳐본다. 레노바레!

❀ 알려드려요

◆ 어린이전도협회

1) 가을학기 새소식반 장습회
일시: 9월 10일~11월 26일 매주 월요일
오전반10:00~ 오후1:00 저녁반7:00~10:00
장소: 베드로선교센터 5층 추수홀
전도자료: 말씀-모세시리즈, 선교-발람랑이 선더
전도자료세트: 5만원(새소식반 교사에게만 판매가능)
문의: 253-1413, 242-8291 (http://cafe.daum.net/cefdh/)

◆ 에스컴

1) 목동모임(중고교 기독동아리 리더모임)
일시: 11월 3일(토) 중학교(오후1시), 고등학교(오후6시)
장소: 베드로선교센타 4층 에스컴 사무실
2) YES, COME PRAISE '이단특강'
일시: 11월 17일(토) 오후6시 장소: 중앙성결교회 본당
강사: 탁지원 소장
문의: 244-5400 (club.cyworld.com/yescomecamp)
한승연 간사 010-3369-6994

◆ 한국대학생선교회(C.C.C.)

1) 여호수아 기도회
일시: 11월 3일(토) 장소: 원주 명성수양관
2) 중급 고급 LTC훈련
일시: 11월 5일(월)~7일(수) 장소: CCC 회관
3) 부모초청 효도잔치(전도집회)
일시: 11월 24일(토) 장소: CCC 회관
문의: 254-5776
❀ CCC 어린이집 원아모집
문의: 010-9533-5776

◆ 예수전도단

1) 춘천 회복을 위한 회요모임
일시: 매주 (화) 오후 6:30 장소: 춘천동부교회 소예배실
대상: 연령, 교단을 초월한 모든 그리스도인
2) 영적성숙 세미나
일시: 12월 13일(목) ~ 14일(금) 오후7시
장소: 석사감리교회 본당
강사: 홍성건 목사(국제예수전도단(YWAM) 동아시아지역 책임자)
회비: 무료(헌금 시간이 있음)
문의: 춘천지부 252-1125 (http://town.cyworld.com/ccywam)

◆ IVF

1) 말씀사경회
일시: 10월 31일 김형원 목사(하나의교회) - 사회선교
11월 1일 김연수 선교사(GBT) - 해외선교
11월 2일 이시종 간사(IVF 학생전략연구소장 - 캠퍼스선교
장소: 강원대 BT(구 심리대 강당)
2) 강원IVF 38주년 가족의 날 체육대회
일시: 11월 3일(토) 오전10시~3시 장소: 춘천교육대
3) 가족의 날
일시: 11월 3일(토) 오후5시~10시 장소: 강원IVF 회관
4) 전국 이사 대회
일시: 11월 16일(금) ~ 17일(토) 장소: 여성 프리자
5) 청기이사회
일시: 11월 9일(금) 오후7시 장소: 강원IVF회관
6) 연합중보기도회
일시: 11월 23일(금) 오후7시 장소: 강원IVF회관
7) 신입간사훈련
일시: 11월 5일 ~ 2월 1일(3개월) 장소: 성주, 파주훈련원
대상: 전국 신입간사 14명 문의: 252-5200

◆ JDM

1) 리더엠티
일시: 11월 2일(금) ~ 3일(토) 장소: 속초
2) 가족의 밤
일시: 11월 16일(금) 오후7시 장소: JDM훈련센터
문의: 252-3192 / 010-9064-3192

◆ GBT성경번역선교회

1) 전국비전기도회
일시: 11월 5일(월) 오후7시 장소: 서울 삼광교회
말씀: 안병진 선교사(동남아시아 I-8)
2) 전국 간사 모임
일시: 11월 7일(수) ~ 8일(목) 장소: 춘천
3) 위클리프 세계 기도의 날
일시: 11월 9일(금) 오전10시~ 오후4시30분
장소: 서울 삼광교회 말씀: 김동화 선교사
4) 춘천 위클리프 스쿨 수료식
일시: 11월 26일(월) 오후7시 장소: 예담교회
문의: GBT춘천지부 이지혜간사(017-383-2416 (chunchean@gbt.or.kr)
GBT춘천지부 -문교동 CBS앞 대웅빌딩 2층 예담교회 내

◆ 태권도선교 시범단 훈련

일시: 매주 월요일 오후 9시~11시 장소: 경원대태권도장
문의: 263-6022, 011-9791-6065

◆ 2007 매일성경 가을독자수련회

성서유니온선교회 강원지부는 매일성경 독자들과 지역교회 목회자 및 교우들의 말씀생활을 돕기 위해 "시사가 어떻게 읽음 것인가?"라는 주제로 시사가 이해와 삶에 구체적인 적용을 돕는 가을독자수련회를 마련.
일시: 11월 10일(토) 오전10시~오후4시
장소: 춘천예담교회(권기천 목사 시무)
내용: 시사가 어떻게 읽음 것인가?
강사: 강정주 교수(개신대학원대학교 구약학)
회비: 1만원(강의안, 점심제공)
주최: (사)한국성서유니온선교회 강원지부
문의: 강원지부회관(033-763-9577, 019-9024-7087)

◆ 봄내호스피스 기쁨의집 자원봉사자 전체 모임

일시: 11월 12일(월) 오전10시~12시 문의: 263-5454
장소: 소양제일교회(본계동 한주A 옆)
대상: 호스피스 자원봉사자 1기~11기 전원
(교육과 예배 후 오찬과 기념품 증정)

◆ 제1회 월드비전 춘천지회장배 주일학교 축구대회

일시: 2007년 11월 24일(토) 오전9시~
장소: 공지천 인조잔디구장 주최: 월드비전 춘천지회
주관: 춘천시 교회축구연합회(회장: 진하수 장로)
대상: 춘천시에 소속된 교회의 주일학교
참가신청: 2007. 11. 18(주일)
참가방법: 참가신청서에 입금복사 지인날인 후 월드비전 신청(별첨)
참가비: 10만원 예상
문의: 회장 진하수 장로(011-9798-8782)
월드비전 박인필 사회복지사(017-372-5769)

◆ 2008학년도 자연유치원 장학생 모집

대상: 개척교회 복회자 자녀(2002.3.1~2004.12.31생)
장소: 춘천시 후평3동 동사무소 건너편 흰색 5층 건물
일시: 2007년 11월 12일부터 선착순 모집
특혜: 교육비 전액 감면(월 20만원)
문의: 033) 241-5511 미니홈피를 참고(cyworld.com/lysince93)



종 합

■ 제1회 장로연합회장배 축구대회



춘천시 장로연합회(회장:이무식)가 주최하고 춘천시 교회축구연합회(회장:정학수)가 주관, 춘천와이신협이 후원하는 '제1회 장로연합회장배 교회대항 축구대회'가 10월 3일(수) 오전9시 공지천 인조잔디구장에서 개최됐다. 축구를 통한 춘천지역 교회간의 친교와 연합을 통한 춘천 성시화를 목적으로 개최된 제1회 대회에는 동부장로, 소양성결, 소양제일성결, 시온성결, 주한장로, 춘천제일장로, 효자감리교회, 포이멘(춘천시축회자축구모임 8개팀이 참가하여 뜨거운 열기 속에 춘천제일교회와 시온교회가 승부차기의 접전 끝에 3:2로 춘천제일장로교회가 우승을 차지하는 영광을 안았다. 동부교회 소양제일교회가 공동3위, 시온교회가 준우승을 차지했다.

■ 일본 케이도쿠카이 직원 내방

한국복지재단 강원도아동보호전문기관(관장:홍창표)는 10월 4일(목) 오전10시30분 일본 케이도쿠카이(사회복지법인)의 양호노인홈, 개호노인보건시설, 특별요양노인홈 직원 4명이 한국복지재단 강원도아동보호전문기관을 내방하여 기관 견학 및 상호교류의 시간을 가졌다. 이를 통해 한국의 아동학대 현황과 대처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질문과 일본의 현황을 비교하는 등 일본의 노인복지현장에 대한 이해를 도왔다.

■ 침례교 강원목회자 대회



침례교강원도목회자협의회는 10월 8일부터 9일까지 이틀 동안 강릉실내체육관과 효산콘도에서 8개 지방회가 한 자리에 모여 체육대회와 다양한 친교활동을 통한 친목을 다졌다.

■ 이웃과 함께 하는 흘리클럽



춘천흘리클럽(회장:이학규장로) 임원단은 10월 9일(화) 춘천시 신북읍 소망의 마을 헤비타트 사랑의 집짓기 운동에 참여하여 구슬땀을 흘리며 이웃 사랑을 실천하고 봉사활동을 펼쳤다.

■ 2007 춘천 청소년 문화축제 성황리에 끝나.



춘천시, 춘천MBC, 춘천교육청이 공동 주최하고 춘천 YMCA가 주관한 '제10회 춘천청소년 문화축제'가 10월 13, 14일 이틀간 삼천동 청소년 푸른쉼터에서 약 7000여명의 시민과 청소년들이 참여하여 깊어가는 가을 청소년을 위한 문화의 향연을 즐기는 시간을 가지며 성황리에 끝났다.

■ 웃음 치료, 즐거운 인생



웰드비전노인대학에서는 10월 16일(화) 오전 11시 본회 강당에서 약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웃음특강을 열었다. 춘천경찰서 직장선교회장 지상근 강사는 "즐겁게 사는 인생입니다."란 제목으로 웃음을 통한 질병의 치료와 웃음이 주는 행복과 즐거운 인생을 사는 법에 대해 강연하였다.

연합회 성경세미나



춘천기독교연합회(회장:이원호목사)는 10월 4일(목) 오후7시30분 소양성결교회에서 목회자와 장로들을 대상으로 한 성경세미나를 열었다. "성경으로 집짓기"를 주제로 엘림성경훈련원장 장시춘 목사(워싱턴 말씀의 교회)는 건축식 성경도해에 의하여 성경을 신학적이나 어미한 학문적으로 연구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구원사적으로, 영적 흐름으로 강해하여 신·구약의 맥을 잡을 수 있도록 강의하였다.

장로교연합회 부흥성회



춘천장로교연합회(회장:문종식목사)는 10월 28일(주일) 오후7시 춘천제일장로교회에서 종교개혁주일 연합예배를 드리고, 29일(월)부터 31일(수)까지 부흥성회를 열어 '축복의 날을 맞이하라!'라는 주제로 은혜의 잔치를 열었다. 강사 이동현 목사(경기도 광주 평화장로교회)는 사사기서 말씀을 통하여 "다음세대에게 우리의 영성과 신앙을 물려주지 않는 것은 인생의 고통을 물려주는 악한 일"임을 강조하였다. 또한 열왕기상 17장 말씀을 조명하여 "상식을 회복하고, 사명을 다시 깨달으며, 작은 일에 감사하고 충성하여 하나님이 쓰시는 한 사람이 될 것"을 당부하였다. 또 30일(화) 오후2시 춘천제일교회에서 "축복의 문턱에서"라는 제목으로 제직세미나를 가졌고, 31일(수) 오전10시 평화교회에서는 "유다서 강해를 통한 제직 훈련"이란 제목으로 춘천지역목회자 세미나를 열었다.

침례교연합회 부흥성회

춘천침례교지방연합회(회장:차태호목사, 준비위원장:김기만목사)는 10월 28일부터 31일까지 춘천침례교회에서 부흥성회를 개최했다. '찬란한 신앙행진과 사도행전의 부흥을 이루자!'를 주제로 조황호 목사(화성중앙교회)의 은혜의 말씀잔치가 열렸다.

■ 장로연합회 정기총회



춘천기독교장로연합회(회장:이무식)는 10월 25일(목) 오후5시 석사교회에서 제21차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총회에서는 마춘규 장로(춘천제일장로교회)가 신임회장을 선출되었다.

■ The Classic 콘서트



춘천CBS방송과 춘천중앙감리교회가 공동주최한 'The Classic' 박종호 콘서트가 10월 28일(주일) 오후7시 중앙감리교회에서 약 3천여명이 넘는 춘천시민들과 성도들의 뜨거운 호응 가운데 열렸다.

■ 소망의 마을 입주식



헤비타트 춘천지회는 10월 19일(금) 오후2시 춘천시 신북읍 천전리에서 소망의 마을 입주식 및 협약식이 가졌다. 이날 김창수 춘천지회이사장, 이광준 춘천시장, 허천 국회의원, 유양수 소양강댐관리단장, 이창식 본부운영위장, 허민구 건축분과위원장, 지남기 가정분과위원장, 사공정 자문위원 등이 참여한 가운데 박인관 이사의 사회로 203, 204등 두 개동 입주식이 진행됐다. 또 한국수자원공사는 2008년에 3억5천만 원을 지원하는 약정서 교환 및 협약식을 가졌다.

■ 2007 Apple Day, 화해의 날



국가청소년위원회와 춘천시, 춘천YMCA는 학교폭력대책국민협의회와 함께 2002년부터 매년 10월 24일을 'Apple day, 화해의 날'로 정하고, 학교폭력예방 및 사회적 화해분위기 확산을 위한 범국민캠페인을 전개하고 있다. 'Apple Day, 화해의 날'은 사소한 일로 멀어졌던 사람들에게 사과를 선물하며 화해와 사랑의 마음을 전하는 날'이다. 올해 10월 20일(토) 브라운5번가에서 열린 청소년 어울마당 화해의 날 행사는 청소년 보컬공연(춘천고, 성수여고), 댄스공연(C.P.NINE, MECCA), 만화그리기 대회 등 다양하게 펼쳐졌으며, 서로 화해하고 용서하는 의미의 안아주기 대회도 열렸다.

■ 춘천 성시화를 위한 기도회



춘천흘리클럽(회장:이학규장로)은 10월 22일(월) 오전6시30분 소양제일성결교회에서 제17회 기도회를 개최했다. 소양제일교회 이주호 목사는 "거룩한 지대"란 제목의 말씀을 전하였고, 춘천성시화와 흘리클럽을 위하여, 춘천시와 강원도를 위해, 12월에 있을 대통령선거를 위해 뜨겁게 기도하였다. 또 이날 월례회에서는 사업보고 후 11월 13일 인천성시화운동본부 주변 시찰건과 생활게선 캠페인에 대한 안건을 논의하였다.

■ 성시신문 단합대회



춘천성시신문 편집위원들(위원장:최영조)은 10월 23일(화) 대룡산 등반을 통해 친목을 도모하고 성시신문의 발전을 위한 다양한 논의를 하였다.

■ 교역자연합회와 기독교연합회 총회



10월 31일(수) 평화교회에서는 오전 10시 장로교연합회 주관으로 목회자 세미나가 열렸고, 오전11시30분 춘천교역자연합회(회장:한균목사) 총회를 개최, 이어 12시 기독교연합회 총회를 개최하는 연합행사를 가졌다. 세단체가 한 자리에서 연합하여 세미나와 총회를 갖는 특별한 의미의 시간이었다. 이를 통해 기독교연합회는 회장 한균 목사, 수석부회장 정효근 목사, 부회장 피종호 목사, 마춘규 장로, 총무 김덕용 목사가 선임되었고, 교역자연합회에서는 회장 피종호 목사, 부회장 지용찬 목사가 선출되었다.

www.seeds21.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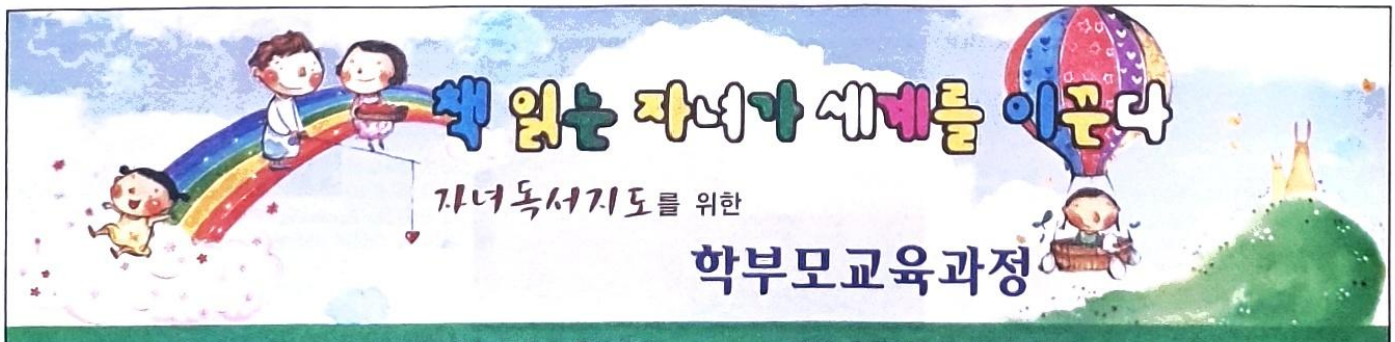
Microsoft Office Specialist
Authorized Testing Center
MOS 공식 시험센터
MOS 지정 교육기관

컴퓨터로 만들어 가는 세상

MOS / 정보처리기사, 산업기사 / 사무자동화기사
컴퓨터활용능력 / 워드프로세서 / OA과정
웹디자인 / 그래픽디자인 / 동영상편집
홈페이지 제작



SCI 씨앗컴퓨터학원
Seeds Computer Institute
☎ 033) 252-0179 춘천시 후평3동 891-11 (동아목욕탕 3층)



자녀독서지도를 위한
학부모교육과정

내용 : 가치관 및 비전 학습, 글쓰기 및 평가지도 학습, 독서 및 독해 학습,
독서토론 및 발표학습
기간 : 5주간(매주 토요일 3시간 학습, 10명이상 성원되면 겨울방학 중 과정실시)

대상 : 초등학교 자녀를 둔 학부모, 자녀 독서지도에 관심 있는 분
주최 : 다니엘 아가피아독서스쿨
문의 및 등록 : 244-5925, 011-373-5922

자연유치원은 귀한 자녀의 첫 학교입니다.

유아학교
SINCE 1993 JAYEONKINDERGARTEN
교육인적자원부

2008년도 신입 원아모집

* 입학연령 : 2002. 3. 1~ 2005. 2. 29
* 모집기간 : 2007년 12월 1일(선착순 모집)
* 특 전 : 개척교회목회자자녀교육비 전액감면
* 문 의 : www.cyworld.com/jysince93
☎ 241-5511 / 5522
jysince93@hanmail.net





원장 이관형
1993년 은광유치원 개원
(현, 자연유치원)
강원대학교 사범대학 미술교육과
한림성심대학교 유아교육과
건국대학교교육대학원 유아교육과
미술치료사, 독서치료사, 이동청소년 상담사, 유아체육지도자, 스피치지도자

(부설)인성미술치료진단연구소/ 신바람길거리응변교육원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잠 22:6)

'미라클 영어회화 훈련소' (인트로8기)

1. 개강일시 2008년 1월 3일(목) 오후 6시 40분(시간엄수)
2. 기 간 1월 3일(목)~1월 29일(화)(매주월,화,목금 6:40~10:10PM) 11일 34시간00분씩 1개월16일간 총56시간의 학습 및 훈련
3. 훈련단계 및 교재 인트로단계 8기 교재(Interchange Intro) - 캠브리지 대학출판사 -
4. 장 소 '곰이없는교회' (교통편 카톨 22번, 28번버스)
5. 본훈련소는 ① 조5.6년 중 고등학생, 대학생, 일반등 누구나 참여만 하면 영어컴플렉스 완전해방 꿈과 비전을 심어준다.
② 영어회화를 공부하다가 더 이상 실력이 늘지 않거나, 어려워서 포기하신 분의 고민을 완전히 해결해 주는 곳 강사보다 훈련생이 더 말을 많이 하게 한다.
③ 영어회화를 기초부터 체계적으로 배우기를 원하시는 분 최단기간에 영어회화를 정복하고 싶으신 분
④ 졸업이 임박한 분 선교지로 파송될 분 해외여학연수, 유학가기 전에 미리 반드시 거쳐야 할 곳.
⑤ 경험자의 입소문을 듣고 타지역(서울 부산, 성남, 광주 등)에서도 방학때 훈련에 참가 외서훈련받는 곳
⑥ 영어회심을 통해서 훈련시키므로 회화뿐만 아니라 영어공부 진면(리스닝, 발음문법 회화독해)에 대해 완벽히 핵심을 습득할 수 있기 때문 에 예비중학생이나 영어에 자신감없은 중고생 자녀에게도 매우 좋습니다.
6. 본훈련등록마감 12월 22일(토)까지 선착순 마감(조기마감을 주의 하세요).
(☎264-0691, 011-386-6239 010-8250-0668)
7. 공개설명회 및 체험시례 1차(12월 1일(토) 오후5시~6시00분) / 2차(12월 15일(토) 오후5시~6시00분)

훈련생 자격 : 기독교신앙인 고루 훈련할 수준자의 추천을 받은 자이거나, 그렇지 않은 경우 반드시 1차의 공개설명회를 1회를 참석하고 그 훈련등록을 철저 지도서 접수하여야만 반드시 참석해야 이후 참가 자격이 허용되며 훈련생 자격을 주는를 취소합니다. 처음 접으시기 바랍니다

청명 학기적이고 형학한 생생이다. 우리 주교자들의 영는문이 영통을 허고 있다'
'서울에서 매일 출퇴까지 오시 우리만은 친구는 개로 영업이오 출퇴에이라 곳이 있다니 정말 놀라워요!'
'영어회화 기적이 영어닷다!' '미국 현지에서 쓰는 영어가만 / 개월만에 영어 영리다!'
'센신생의로 영국 공개설명회 참석자들이 거의 100% 등록 했습니다!'
'등 · 고등학 등학 에서생들에게도 다 같이 등은 기회가 될 것입니다.'
'단는한 이해 가 아닌, 독창적이고 학기적인 미라클식생생으로 '정통적인 우리' 을 해야만 회화까지도 됩니다.

'미라클 영어는 영어의 핵과 핵을 핵폭는 최고의 훈련과정입니다. 많은 시도를 해왔지만 나이 40이되도록 풀지 못했던 영어에 맺힌 한을 이제야 풀게 되었습니다 이과정은 영어의 구조의 핵심을 그기초부터 확실히 계단을으로 영어 그 자체에 대한 전반적이고도 핵심적인이해를 갖게 합니다. 또한 강사의 독특한 설명문법 전체 및 열정적인 교수와 훈련으로 훈련자에게 영어를 향한 큰 자극과 도전과 흥미를 갖게끔이 갖게 합니다. 온전한 하중을 마친 이 미라클 과정은 훈련생으로 하여금 영어실력의 가적과 같은 탈바은 물론이고 한 걸음 더나아가서 타인의 도움 없이도 자기 스스로 영어를 습득하는 획기적인 방법을 정확히 습득시켜 줍니다. 중고생은 물론이고 영어에 한 맺힌 분들에게이과정을 큰 기쁨으로 적극 추천합니다' - 세인교회 김근수 목사 -

'영어기 나무 재미없고 영어를 위해 시험공부를 하지않는데도 영어가 나무 쉬웠어요 친구들이나 영어 에서 배웠다고 들었어요' '어렵게 쉬운 걸 왜 그렇게 어렵게 생각한 는지 모르겠어요' '참석한 하면 된다고 해서 그냥 참석한 했는데 그어렵게 느껴지던 문법이 나무나 쉽게 정리 되구 습득이 되구요. 대강 단어를 끼워 맞추어 독해를 해서 해놓고도 맞았는지 틀렸는 지 자신이 없었는데 이제는 분명한 자신감을 가지고 독해를 하고 또한 속도도 그때 이상 빨라졌어요 정해서 따로 시간을 내서 복습하지않아도 그 자리에서 습득이 되니까 너무 좋아요' '정확기 틀려요' '정해서 영어로 잘할 했어요' '일 기는데 영어가 학에나와요' '선는에서 매일 정확시간 차지고 다른서 훈련 했는데 하루하 루가 너무 재밌고 의미 있어서 3시간 반이 언제 지나는지 몰라요' '수준 있는 완벽한 영어구사능력은 완벽한 문법과 독해가 선행되어 한다는 말이 실감이 돼요. 문법과 독해 그리고 발음이 너무나 정확하게 습득 돼요. 정말 믿기 어려울 정도예요' '에비 중학생에게도 정말 추천해 주고 싶어요'

-초5년에서 50대 주부까지-

'나무 쉽게 설명해 주시서 8시에나 분명히 일게 되니까 재미있고 가치가 돼서 3시간 반이 언제 지나갔는지 모를 정도로 금방 지나가요 - 석사 초년-
'영어를 전공하고 있고, 또 열심히 공부했 는데도 영어가 잘 안되었는데 그 이유를 이제야 알겠어요 영어의 핵심이 한눈에 들어와요 '중학교 때부터 이런 식으로 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너무 커요'

- 현명대학영문과 재학생 -

'영어를 배우고 싶어하시는 분이라면 다른 그렇었겠지만 저 역시 학원을 참 많이 다녔습니다. 그게 대학 때부터니까 꽤 오랜 시간 영어의 늪에 빠져 있었네요. 공개설명회 때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설마 했었습니다. 다양한 계층의 훈련생을 대상으로 어떻게 강의를 하시려니 하지만 훈련하는 날이 하루하루 지나고 영어 교재가 한장 한장 넘어갈 때마다 신택해 강사드 였습니다. 초등학생부터 나이 지긋한 어른 훈련생 모두가 만족할 만한 그런 시간들의 연속이었습니다. 거짓말 같이 들리겠지만 목사님의 설명을 들으면 그어렵던 문법도 아주 쉽게 이해가 되었습니다. 또 배운 문법이 완전히 습득이 되어서 내가 하고 싶은 말을 영어로 어떻게 저렇게 바꿔기며말할 수 있는 능력까지 생기더라구요 놀랍지만 정말이랍니다. 간단한 예문도 몇 번을 반복해 이외우던 지금 수준으로서는 상상도 못할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죠. 정말 미라클 훈련은 정말 미라클(기적입니다. 긴 문장도 한번에 보이고, 훈련하다 보니 아는새 좋아진 내 발음에 제가 기특해 지고 일생생활 할 속의 일을 영어로 말해보는 습관이 생기고. 이전에는 생각도 못했던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더군요 영어는 어려운 학문이 아닌 언어라는 당연한 사실을 확실히 깨닫게 해준 고마운 시간이었습니다.'

- 기본훈련단계 까지 수료생 이미국에서 -

춘천성시화운동본부